

신기루

용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누각

레이윤

신기루: 용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누각

© 2020 윤승서 Rei Yoon. All rights reserved.

본 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배포, 복제, 인용,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책은 비매품/무료로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초판 발행: 2020년 6월 10일

지은이: 윤승서 Rei Yoon

이메일: rei.yoon@daum.net

책 내려받기: www.sarm.guru

표지 디자인: 황선희

펴낸이: 이상우

펴낸곳: 도서출판 땅과얼

등록: 2019년 8월 12일(제 2019-000081 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03-7

ISBN: 979-11-968111-2-9 05190

서문

일곱해 전 종남산 송광사에서 탈고했던 책을 묵히다가 올해 발간을 결심하고 손을 봤다. 미흡한 글을 읽고 남긴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보잘것 없고 불완전하여도 실천을 하려 했다.

세상을 보면 인간이란 종에 속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호모사피엔스의 행태는 슬기와 거리가 멀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늘 땅 바다의 오염도 아랑곳없고 동식물에 대한 잔혹한 유린은 제 6의 대멸종을 부르고 있다. 사람에게 대한 폭력과 착취는 말해 무엇하랴. 모두 자기 내부가 불안하여 밖으로 저지르는 일이다.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물질적 정신적 자립을 확보해야 한다. 두손 두발로 노동하여 식량을 자급하면서 자기 환경을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가꾸고, 자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연대하면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새겨 신체와 심성을 수행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면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왜 자기 안의 무한성을 보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택하는가.

나는 농업에서 흙을 살리고 태극권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고자 했다. 에이아이 바이오 나노 케미칼 멀티내셔널 등 유물론자들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망상을 벗어나자. 컴퓨터에게 바둑을 진 것은 기차에게 달리기를 진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인간의 위대함은 기능에 있지 않고 영성에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겸손과 따뜻한 사람의 마음에 치유의 길이 있다.

먼지 탁탁 털고 깊은 숨을 마시자. 지혜와 사랑, 자유와 야성, 자립과 형제애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

2020년 6월 10일
카스카디아 산맥 자락에서
레이운

목차

서문	1
가시별 사랑 이야기	4
불을 일으키자	8
꿈이 아닌 것	9
고통을 끝내는 책	10
선행의 보답	12
원숭이 마음	14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	15
세상을 바꾼다는 것	17
푸줏간의 성자	19
가장 강한 신	21
검은 나라 하얀 나라	23
슬견설	29
왕의 요리	30
위대한 왕	31
바뀌가며	35
어떨 때는 착한 사람들	37
잘남과 못남	38
신발을 다오	39
씨앗을 다오	41
내 뜻은 신의 뜻	46
사랑을 키우다	47
사후세계 골라먹기	48
자유로운 영혼	51
마음의 병	53

설원의 법칙.....	56
병을 고치는 나무	59
채움과 비움.....	61
전생과 내생을 보는 능력.....	66
아버지의 편지	68
어머니의 편지	69
고마운 중재자	70
용과 뱀	71
성인의 부활.....	74
사랑과 용서.....	77
엄힘과 나눔.....	79
탐욕마왕	81
명의	83
인간을 부르는 손짓	84
생각의 별	86
꿈을 깨다	88
자자와 타타.....	90
당근 그냥 너 먹어라.....	92
자기애.....	94
두 사냥꾼	95
음식 버리지마라.....	96
강을 건너는 자	97
마음의 성형수술.....	98
왕족발.....	99
엘리트와 야인	101
四分說.....	107

가시별 사랑 이야기

가시별 사람들은 온몸에 가시가 돋아 있었다.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이용해 남을 찔러 생명력을 빨아먹었다. 매일 남을 해치고 이기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돼있었다

소망(小望)은 가시별 도시의 평범한 시민이었다. 조금 약하고 조금 짧은 가시를 가지고 열심히 남을 찔르며 힘겹게 생존하고 있었다. 싸움 능력이 별볼일 없어 생활은 힘들었다.

어느날 소망은 귀족의 싸움 장면을 보게 되었다. 거대한 귀족의 가시는 약하고 가난한 시민들의 몸을 무자비하게 꿰뚫었다. 번쩍하면 수십명씩 쓰러뜨렸다. 생명력을 잔뜩 빨아먹은 귀족의 가시는 더 강하고 커졌다.

소망은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다. 무언지 모를 염증에 이끌려 산으로 떠났다.

도시를 떠난 그는 아무도 찔르지 못하여 생명력이 점점 줄고 있었다. 하지만 되돌아가지 않고 더 깊이 산으로 들어갔다.

며칠을 걸었다. 덩쿨을 헤치며 가시들은 부러져 나갔다. 내면의 요동에 분주한 그는 작은 산새가 맴도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깊은 밤 휘청이다가 쓰러졌다. 이렇게 죽음이 오는가.

동쪽 하늘에 붉음이 툭 터지더니 빛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조금씩 밝아지고 약간씩 따뜻해지는 세상. 뺨에 닿은 흙이 향긋하다. 시야가 흐려지는데 눈 앞에 하얀 물체가 어른거렸다. 사람이었다. 별거벗은 여인. 저 여자는 왜 가시가 없지? 의아한 찰나 기절했다.

깨어났다. 몸에 힘이 돌아왔다. 남을 찔르지 않았는데 어디서 생명력이 들어왔지? 번쩍 고개를 든 그의 눈에 여인이 들어왔다. 가시가 없는 몸은 처음 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

여인은 어째서 가시가 없지요?

여인은 은은히 미소지었다. 가시는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생명을 가져갑니다.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가시는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남에게서 가져오는 만큼 내 것이 되지요.

여인답 가시는 남의 생명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지만, 남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둘 다 키우는 길이 있지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가시별 사람들은 왜 모두 싸우며 살겠습니까?

물은 마실수록 줄지만 불은 나눌수록 커지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당신을 구해주어 당신도 생명이 커지고 나도 생명이 커졌지요.

해갈이었다. 소망의 영혼 깊은 목마름을 향해 생명수가 쏟아지고 있었다.

사랑이라면 가시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군요! 당장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인은 말렸다.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피흘리고 싸우는 삶을 끝낼 수 있는데 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우리 둘 다 죽게 됩니다.

소망은 여인의 말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온 그는 사랑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싸워야만 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게 아닙니다.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듣는듯 만듯 하던 백성들은 차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조금씩 사랑을 배웠다. 사랑을 실천하자 정말 나와 남의 생명이 동시에 커졌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기뻐했다.

그날도 소망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가시의 섬광이 빛나는 순간 그는 기절하였다.

감옥에서 눈을 떴다. 앞에 거대한 귀족이 앉아있었다. 너는 질서를 어지럽혔다.

사랑을 전한 것이 왜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냐.

이 세계는 싸움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다. 싸움이 사라지면 세계가 무너진다.

귀족들이 무너지겠지.

하하. 귀족은 큰 소리로 웃었다. 마녀의 위치를 말하라. 솔직히 말하면 살려주겠다.

목숨걸고 그녀를 지킬 것이다.

하하. 귀족은 다시 웃음을 남기고 떠났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산새는 날아올라 산으로 돌아갔다.

여인이 산새에게 말했다. 가서 소망에게 이르렴. 내가 있는 곳을 말하고 목숨을 구하라고. 내가 스스로 도시로 가겠다고.

그날 밤 산새는 창살에 내려앉아 소망에게 말을 전했다. 소망은 놀라서 외쳤다. 나를 구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냐? 여기로 오시면 안된다! 귀족은 여인을 죽일 것이다!

사랑받음의 느낌에 눈물이 터지더니 어찌할 수 없는 비극에 오염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산새야 여인에게 전해주렴. 내가 여인이 있는 곳을 말해도 귀족은 나를 죽일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죽일 것이다. 나를 구할 수 없으니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전해다오.

사랑의 진리를 들은 것으로 삶은 충만해졌고
사랑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소명은 완수되었고
사랑의 희생을 받은 것으로 분이 넘치도다

마지막으로 읊고 소망은 몸을 일으켜 힘껏 머리를 쭈었다. 새벽이 터져 붉은
빛이 땅을 적셨다. 식어가는 몸에서 가시가 하나씩 사라졌다. 아름다운
부드러운 몸이 차가운 바닥에 누웠다.

산새는 황급히 날아올라 여인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인은 한참 미동을 못하고
있다가 결연히 길을 나섰다.

불을 일으키자

사해(四海)라는 거대한 누각에 맹렬한 화염이 솟았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멸귀(滅貴)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불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멸귀는 황망히 소리 질렀다. 거기서 뭐하시오! 빨리 나오시오!

불타는 사람들은 멸귀를 힐끗 보더니 꿈쩍하지 않았다. 멸귀가 다시 소리 질렀다. 왜 안 나오는 거요? 죽고 싶소?

불에 휩싸인 자가 답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소.

불이 몸을 기어오르는 사람曰 아무도 안 나가는 것을 보면 여기 머무는 것이 옳아요.

얼굴이 녹은 사람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불타는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다오.

멸귀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미쳤소! 내가 불을 꺼드리리다.

멸귀는 부지런히 물을 길러와 끼얹었다. 차이익. 혼신의 힘을 다해 불을 꺾다. 불길이 가라앉고 여기저기 화상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드러났다. 화기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상실감과 당황에 어쩔줄 몰랐다. 곧이어 하나둘 외치기 시작했다. 아니 왜 불이 꺼진 거야! 저 녀석이 불을 꺾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쫓아왔다. 멸귀는 기겁하여 도망쳤다. 아니 저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불에서 구해줬더니 날 죽이려 들어!

한참을 달려 높이 산에 올랐다. 마을을 내려다봤더니 하늘엔 연기가 오르고 사람들은 모여 다시 불을 일으키고 있었다.

꿈이 아닌 것

아름다운 여인은 검은 개 한마리를 데리고 혼자 살았다. 어느날 꿈속에서 개가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깜짝 놀라 잠을 깬 여인은 이상한 꿈이다 가우뚱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강철 같은 힘으로 그녀를 덮쳤다.

그뒤 여인은 실성했다. 옷이 찢어진채 거리를 헤맸다. 방황할수록 고통은 더해졌고 지을수록 기억은 생생해졌다. 생각은 잡초처럼 뽑아내면 더 커져서 돌아왔다. 정신없이 걸던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절벽.

끝내자.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뒤돌아보니 성자가 서있었다. 여인은 문득 마음이 풀어지며 말이 흘러나왔다. 이야기를 듣고 성자는 말했다. 제게는 신통이 있어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날 밤의 일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남자에게 겁탈당하는 꿈으로 잠이 깬고, 깨는 순간 개가 침대에 들어왔던 겁니다.

여인은 어이가 없었다. 아니 분명... 토를 달려 했으나 말문이 막혔다. 점점 자기 기억이 헛갈렸다.

가시오. 꿈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고! 성자의 일갈에 그녀는 자유를 얻고 돌아갔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한 거짓입니까? 그녀가 겁탈당한 일은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성자가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답했다. 꿈이 아닌 것이 무엇이더냐?

고통을 끝내는 책

왕은 지혜로운 이들을 불러 모았다. 빈 책을 한권씩 주며 명하길 1 년의 시간을 줄테니 고통을 끝내는 길을 적어 오시오.

시간이 지나 이들은 다시 왕 앞에 집결하였다. 먼저 전환(轉換)이란 자가 자신의 집필을 보고하였다. 고통이 일어날 때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옳은줄 아뢰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유쾌한 연애를 하거나 정신을 잃을만큼 술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왕은 못마땅하여 曰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된 것은 아니잖소.

쾌락(快樂)이 자기가 쓴 책을 펼쳤다. 먹고 마시기 소유와 소비 자족감과 으시대기 등 온갖 쾌락들을 논하고 남녀 체위까지 묘사했다. 왕이시여 유한한 삶 속에 최대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왕이 고개를 저었다. 쾌락이란 것이 어디 얻기가 쉬운가! 게다가 쾌락의 끝은 허무야.

염세(厭世)가 책을 펼쳤다. 왕이시여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 세상은 불행한 곳이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사웁니다.

왕은 더 못마땅하여 꾸짖었다.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아오랬더니 고작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사유(思惟)가 책을 열었다. 과연 이름답게 기나길고 복잡한 사유의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다. 고통을 직면하면 사유를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왕은 흥미를 느꼈지만 問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아는 것과 해결되는 것은 다르잖소?

잠자코 있던 신앙(信仰)이란 자가 거들먹거리며 나섰다. 앞에 나온 방법들로로는 안됩니다. 고통을 해결하려면 오직 나의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왕이 되물었다.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믿는단 말이오?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과 실제 구원되는 것은 관계가 없잖소?

신앙썩 그럴수록 의심을 없애고 더 강하게 믿으면 되웁니다.

궤변이오!

왕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둘러보니 아직 발표하지 않은 무구(無求)가 남아있었다. 그대는 무엇을 적어왔는가?

무구는 쭈뼛하더니 책을 펴보였다. 아무 글없이 텅비어 있었다. 왕이 노했다. 그대는 짐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오?

고통이 일어남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통을 끊어라 라고 적으면 그것을 읽은 자는 고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 그르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구료. 그럼 어떡하면 좋겠소?

끊어라!

선행의 보답

윤재(輪再)는 자기만 아는 인간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쫓았다. 죽어 저승에 갔다.

염라대왕曰 넌 생전 선행이 하나고 악행이 아홉이다. 다음 생은 즐거움이 하나, 괴로움이 아홉인 곳으로 태어날 것이다.

윤재가 볼멘 소리로 항의했다. 속세가 얼마나 힘든줄 아십니까! 착하게 살면 좋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구요!

시끄럽다! 선행은 힘든 속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쉬우면 누구들 못하겠느냐.

염라대왕의 이 말은 윤재의 기억에 단단히 박혔다.

다음 생에 윤재는 고달프고 힘든 곳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는 염라대왕의 말을 기억하는 양 괴로운 가운데 착한 일을 해나갔다. 어려운 가운데 남을 돕고, 희생을 감수하며 정의를 택했다. 다시 죽어 염라대왕 앞으로 나아갔다.

놀랍구나. 한번의 윤회로 이 정도 변화를 이룩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 내 각별히 그대를 다음 생에는 영예롭고 유복한 곳으로 보내주리라.

하지만 윤재는 머뭇거리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않느냐?

제 선행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면 그 복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럼 너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저는 보상을 위해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誦

저는 고통이 가득한 곳에 태어나겠습니다
비극적 운명의 약소국에
비천한 계급의 집안에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
천시를 받으며 자라고
멸시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고통을 받아도 피함이 없고
미움을 받아도 화남이 없고
모두가 피하는 것으로
제 생을 채워주소서
하여 그 생이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고통이 없다는 진리를 보이게 하소서

염라대왕이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내 수아승기의 수아승기점을 재판해왔으나
이같이 아름다운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원숭이 마음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산과 바다, 바위와 호수, 동물과 식물을 모두 만들었다. 힘센 곰, 용맹한 호랑이, 어여쁜 공작, 토끼와 거북이, 고래와 새우, 실새없이 달리는 말과 신나게 날뛰는 원숭이를 보며 흡족했다.

마지막으로 우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줄 자가 필요했다. 그 형상은 자기 몸을 본뜨고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넣기로 했다. 사랑함을 줄여 사람이라 이름 지었다.

신은 땅에서 뼈를 가져오고, 물에서 살을 가져오고, 불에서 열기를 가져오고, 바람에서 숨을 가져왔다. 사람의 몸이 만들어졌다. 이제 사랑만 넣으면 된다. 사랑을 넣기 위해 사람의 정수리는 아직 열려 있었다. 신은 쉬기 위해 처소로 돌아갔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숭이는 호기심이 일었다. 신이 떠난 뒤 다가와 사람을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아직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꼼짝 않고 인형처럼 앉아있었다. 사람의 정수리가 열린 것을 보고 원숭이는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텅 비어있었다.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더 깊이 들여다보다가 그만 앓! 원숭이는 사람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다음날 돌아온 신은 깜짝 놀랐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원숭이가 들어와있었다. 마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순간도 가만 있질 못했다. 신이 탄식했다.

안타깝다! 사람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의 우주는 완성되지 않거늘!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

구부득(求不得)은 못나고 병약하고 가난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며 친구가 없었고, 커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 늘 실패했고 궁핍하고 외로웠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다. 임종 순간에도 곁에 아무도 없었다. 구부득은 자기 생을 생각하니 너무 서러워 껴끼이 울었다.

그 소리를 듣고 성자가 다가왔다. 가엾은 사람이여 왜 우십니까?

저는 남들 다 누리는 흔한 즐거움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멸시로 한평생을 끝내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성자問 구부득께서는 남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몽땅 누리는 삶을 살면 죽을 때 안 억울할 것 같소?

물론입니다.

그 순간 구부득은 유복한 집안의 옥동자로 태어났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밑에서 빼어난 용모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다. 남녀노소 모두 그를 좋아하고 따랐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부유하게 살아갔다. 다시 세월이 흘러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구부득은 생각했다. 나는 참으로 모자람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한이 없지 않았다. 죽음을 맞선 지금 화려한 행복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다. 다시 서글픔이 밀려와 그는 껴끼이 울었다.

그 소리를 듣고 성자가 다시 찾아왔다. 구부득이여 육계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가면서 이제는 무엇이 서글프시오?

죽음 앞에 모든 즐거움은 서리를 맞은 꽃 같습니다.

이번 생보다 더 행복한 생으로 보내드리오리까? 하늘에 신으로 태어나 역겹의 세월을 쾌락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여도 허무를 벗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죽음 앞에 후회가 없으시겠소?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오게 돼있는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오?

모르겠습니다.

구부득이여 그대가 원하는 후회없는 삶을 선택하시오. 내가 그 삶으로 보내드리리다.

생으로 얼룩진 구부득의 얼굴은 깊은 사색에 잠겼다. 한참을 궁리하던 그는 평온함을 갖고 입을 열었다.

삶의 행복이 죽음을 달게 하지 못하고
삶의 불행이 죽음을 쓰게 하지 못합니다
구하여 의미있는 삶이 없으니
살아서 준비할 죽음이 없더이다

성자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좋습니다. 그래 무슨 삶을 간택하시겠소?

택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

피로운 세상에 세 영웅이 태어났다. 자력(資力), 사공(社公), 민원(民遠).

자력은 시장이 효율과 자유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정열적인 기업가가 세상을 구한다. 능력에 따라 가져가면 모두 자기 몫을 더 가져가고 싶어서 필요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쟁은 효율을 낳고, 효율은 생산성을 낳고, 생산성은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 자력은 평생을 헌신하여 시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곧 부패가 영금영금 기어들어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사회,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약자는 더 가난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사공은 평등을 신봉하였다. 모든 이가 공평하게 분배해서 갖는 세상을 꿈꾸었다. 능력만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면 될 것이다. 사공은 평생을 바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그러나 부패가 스물스물 기어들어 사람들은 남이 노동하기를 기다리며 게을러졌다. 게다가 분배를 하는 주체가 무능력한데 더해 타락하여 효율적 분배는 뒷전인채 자기 권력 늘리기에 급급했다.

민원은 민주투사였다. 평생을 다하여 독재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제를 수립했다. 드디어 선거제가 정착하고 사람들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았다. 그러나 부패가 야금야금 스며들어 권력자들은 영구적 지배를 기획하거나, 임기 동안 한탕 해먹으려고 난리를 쳤다. 사람들은 눈앞의 쾌락을 제공하는 지도자를 뽑고 건강한 미래를 제시하는 지도자를 외면했다. 돈있고 타락한 자들만 당선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세 영웅은 평생의 업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허무했다. 어두운 심정으로 함께 산에 올랐다. 며칠을 걷다가 산길에서 만난 현자가 길동무가 되었다.

현자問 그대들은 왜그리 얼굴이 어둡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쳐 건설한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질 줄 몰랐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아름다운 것임에야!

네?

아니, 세워진 일도 없으니 무너진 일도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지요.

자력이 따졌다.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분명히 생생하게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냈다구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세운 일도 없고 무너진 일도 없단 말입니까?

시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공이 물었다. 저는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어째서 평등을 세운 적이 없다는 겁니까?

평등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의아해했다. 저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어째서 일으킨 적도 없다는 건가요?

민주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자가 말을 이었다.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민주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덩어리말고 진짜배기로서 시장, 평등, 민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은 어안이 병병했다. 그럼 우리는 환상을 좇으며 살아왔단 말입니까?

현자囁 신기루를 좇지 않는 자는 나와보라!

푸줏간의 성자

안란(安亂)은 마음의 고요를 얻고자 산속에서 수행했다. 고요한 산속에서 10년을 명상하고 행선하니 마음이 거울같이 맑아졌다. 확고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그는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다.

마을로 내려가자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다. 산에서 10년 살다온 그를 쓸 곳은 없었다. 어렵게 푸줏간에서 일하게 되었다. 짐승을 죽여 몸을 해체하는 것은 피범벅 힘든 일이었다. 백정이 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힘들었다. 어렵게 집을 장만했지만 집값을 갚으려면 평생 매여서 일해야 했다. 집이 생기자 색시를 갖고 싶었다. 색시를 맞이하자 아이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빛이 쌓였다.

세간은 걱정과 곤경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삶이었다. 간혹 즐거움과 달콤함이 찾아왔지만 곧 괴로움과 쓸쓸함이 들이쳤다. 손바닥을 뒤집으면 단맛은 쓴맛이었다. 하나의 곤란을 극복하면 더 큰 곤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란은 견디기 힘들었다. 산에서 얻은 평정심은 산산조각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살기 싫었다. 산에서 누리던 고요한 평화가 그리웠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그믐달 밤 그는 가벼운 짐만 챙겨 들고 나왔다. 산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동이 틀 때까지 걸으니 산 입구에 다다랐다. 거기엔 웬 노인이 새벽 빛을 받으며 나무 밑에 앉아있었다.

황망한 분이여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안란은 노인이 풍기는 편안함에 이끌렸다.

저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수행자입니다. 속세에서는 도저히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이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산에서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은 분이 산에는 왜 다시 들어가려 하오?

그 평화가 그림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세간에서 지키는 것이 그대의 할일이지요. 현자誦

세간으로 들어가라
고요 속의 청정은 쉬우나
혼잡 속의 청정은 빛난다
귀한 자리에서 교만하지 앎기는 쉬우나
천한 자리에서 자괴하지 앎기는 쉽지 않다
높아도 우월감이 없고
낮아도 열등감이 없고
어디를 가든 자유롭고
어디에 처하든 평온하라
시장으로 들어가라
사기와 험잡이 판치는 곳에서
무욕과 정의 그리고 이타를 실천하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애증과 구속이 들끓는 속에서
사랑과 사람을 키워라
천하고 험한 곳으로 들어가라
멸시 속에서 인욕을 배우고
좌절 속에서 겸손을 배우라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나를 해치는 이들을 사랑하라
오물 속에서 고귀하고
사슬 속에서 자유롭고
고통 속에서 행복하라

그 말을 들은 안란은 크게 뉘우치고 발길을 돌렸다.

가장 강한 신

우상(偶像)이란 부족이 있었다. 깊은 산속에 살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종종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을 섬기기로 했다. 호랑이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세우고 열심히 호랑이에게 빌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사람을 해쳤다.

어느날 큰 불이 나서 마을 사람 여럿이 타죽었다. 호랑이 제단도 불타 없어졌는데 심지어 호랑이도 타죽었다.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힘이 센 불을 섬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그해 다시 화마가 일어 여러 사람이 죽었다.

어느날 큰 태풍이 불어 여럿이 죽었다. 신성하게 지키던 불을 꺼뜨리고 불의 제단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바람의 신을 섬기기로 했다. 다시 제단을 세우고 열심히 바람에게 빌었다. 하지만 그해 다시 폭풍이 몰려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었다. 그러자 깊은 생각 끝에 장로가 입을 열었다. 우린 호랑이보다, 불보다, 바람보다 더 강한 신이 필요하오. 강한 신을 모시더라도 그보다 더 강한 신이 있는 법이오. 그러므로 이번에는 가장 강한 신을 모십시다.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 그 가장 강한 신은 어떤 분입니까?

장로가 답했다. 가장 강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강한 신이 누구시냐구요.

가장 강한 신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자 장로는 혀를 찼다. 어허 거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사람들은 헛갈렸지만 아무튼 가장 강하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다.

합심하여 제단을 세웠다. 기둥에 새기길 이 신은 가장 강한 신이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므로.

제단이 완성되자 마을은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그날밤 또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을 물어갔고, 그 다음주엔 불이 나서 여러 사람이
타죽더니, 그 다음달에는 태풍이 불어닥쳐 제단의 기둥까지 뽑아서 며칠리
날려버렸다.

검은 나라 하얀 나라

검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었다. 그들은 유쾌하고 소박했다. 어느날 해안가에 하얀 사람이 발견되었다. 그는 백물(白物)이란 자로, 큰 배가 부숴져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였다. 검은 사람들은 백물을 돌봐주었다.

백물은 검은 사람들의 생활을 멸시했으며 선진적이고 문명적인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백물이 회복하자 검은 나라 사람들은 백물을 돌려보낼 겸, 하얀 나라를 견학하기로 결정했다. 검은 나라 대표로 흑정(黑精)이란 청년이 뽑혔다. 백물의 지시대로 배를 만들어 드디어 바다로 나섰다.

과연 하얀 나라는 으리으리했다. 건물과 도로와 기계 모두 처음 보는 것이었다. 흑정이 백물에게 물었다. 이 거대하고 넘쳐나는 물건들은 누가 만들었지요? 이걸 사람 손으로 만든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드는 거라오.

백물은 흑정을 공장에 데려갔다. 공장에는 끝없는 원자재가 들어가고 있었다. 목재와 철재와 연료와 물 모두 자연에서 캐왔다. 사업가가 설명했다. 자연에서 재료를 가져와야 물건을 만들 수가 있지요. 자연이 파괴되지만 잘 관리하면 문제없습니다.

공장은 시커먼 연기와 폐수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건 물건을 생산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독입니다.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면 독도 더 많이 생기지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업가 얼굴에는 긴장감이 보였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긴장했습니까? 사업가曰 저는 이 사업의 주인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지요. 만일 사업이 망하면 저와 제 가족은 가난과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흑정은 물었다. 사업이 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삶을 왜 사십니까? 사업가答 사업이 성공하면 크나큰 부를 누리게 되지요.

흑정은 사업가에게 고용된 직원을 만났다. 당신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입니까? 직장인答曰 우리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지요. 평생

일해도 큰 돈을 벌지는 못해요. 게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해고될 걱정이 사라지지 않지요.

흑정이 되물었다. 왜 남을 위해 일합니까? 스스로를 위해 일하면 안됩니까?

직장인이 놀라며 답했다. 자영업을 아무나 하는줄 아쇼? 일자리가 있는 것만 해도 행운이지요.

아니 사업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고 집을 짓고 살아가면 되잖습니까?

직장인은 희미한 눈동자를 꿈뻑였다. 무슨 소릴하는지 모르겠네...

공장을 나온 흑정은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다. 당신은 왜 여기서 구걸합니까?

저는 무직자입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고용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왜 남이 고용해줘야 하는 삶을 사십니까?

고용이 되어야 돈을 벌지요.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구요.

왜 돈이 필요한 삶을 사십니까?

그건 무슨 소리요. 이 세상은 돈없이 살 수 없잖소.

두 팔과 두 다리로 집도 짓고 농사도 사냥도 스스로 하면 돈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무직자는 기가 막힌듯 흑정을 바라보았다. 저보고 원시인들처럼 살라는 말이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쇼.

시골로 가자 흑정은 농부를 만났다. 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일은 검은 나라에서 하던거라 반가웠다. 흑정曰

이렇게 큰 면적에서 농사를 짓다니 온 마을에 두고두고 식량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가 먹기 위해 농사 짓는게 아니고 팔기 위해 짓습니다. 이게 잘 팔려야 돈이 생기고, 돈이 생겨야 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큰 기계를 사용하다니 생산성이 대단하겠습니다.

기계가 어디 공짜인가요. 연료도 계속 사야 되고, 수시로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면 늘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전문적인 종자 회사의 씨앗을 사용하니 소출이 높겠습니다.

씨앗이 어디 공짜인가요. 씨앗 값이 해마다 올라요. 이 씨앗들은 채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것들이라 해마다 종자를 사야 해요. 소출이 높긴 한데 소출이 높기 위해서는 비료랑 농약이랑 물을 듬뿍 줘야 되고, 그게 또 다 돈이지요.

그러면 그냥 재래 종자를 쓰지 그러십니까?

재래 종자는 소출이 낮아서 못써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재래 종자는 소출이 적어도 비료랑 농약이랑 물 값이 적게 들어가 결국 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음... 그렇게는 생각해본 적이 없소만. 아무튼 지금은 재래 종자가 모두 사라져서 어차피 구할 수가 없소.

지금 뿌리는게 비료인가요?

그렇지요. 이 가루를 뿌리면 작물이 기적같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러면 소출이 대단하시겠어요.

비료는 어디 공짜인가요. 비료 값이 해마다 올라요. 돈을 좀 벌었다 싶으면 훨씬 더 오르지요. 게다가 비료라는 것이 올해 쓴 것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해에는 또 더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 뻔히 망하는 길인데 왜 가십니까?

뭐 일단 올해 부쩍 자라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기 뿌리는게 농약인가요?

그렇지요. 나쁜 벌레는 살충제로 죽이고, 나쁜 균은 살균제로 죽이고, 나쁜 풀은 제초제로 죽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생명체 가운데 나쁜 것들이 있다구요?

당연하지요. 내가 키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거지요.

인간의 욕심에 거슬리면 나쁘다는 말인가요?

음 그게 정확한 표현이구요.

나쁜 것들을 모두 제거하니 소출이 대단하겠어요.

농약은 어디 공짜인가요. 벌레랑 균이랑 풀이랑 얼마나 지독해졌는지 옛날에 뿌리던 농약은 듣지를 않아요. 더 독한 농약이 나오면 그걸 사다 써야 되는데, 신제품은 또 얼마나 비싸다구. 그러면 녀석들이 또 내성이 생기니 또 더 독한 약이 필요하고...

그렇게 망할게 뻔한 길을 왜 가십니까?

뭐 일단 눈앞에서 벌레들이 나자빠지니까...

그렇게 온천지에 독을 뿌려도 괜찮습니까?

온갖 벌레와 식물과 동물들이 다 죽지요. 흙 속에 작은 벌레와 미생물도 죽지요. 물에 흘러들어 물고기와 물벌레들도 죽이죠.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사람한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하지만 안전규정을 지키면 괜찮아요. 정부가 어렵히 알아서 전문가들 데려다가 안전 기준을 만드는 거겠소. 허가를 받고 시중에 제품이 팔린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요.

흑정은 지금껏 들은 얘기를 음미하면서 물었다. 그러니까 신종자랑 기계랑 농약이랑 비료랑 모두 비용이 들지만 생산을 높이는 것들이니까 일단 엄청난 생산량으로 인해 풍요로워지시겠군요?

아 또 그건 전혀 아니고. 우리 같은 농부는 가난해요.

이렇게 많은 산물을 만들고도 가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생산량이 많아도 팔지 못하면 도루묵이에요. 게다가 어떤 작물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 손해를 면하기 힘들지요.

흑정은 풍요로운데도 궁핍할 수 있다는 묘한 이야기가 난해하게 들렸다.

그렇게 하얀 나라를 한바퀴 둘러본 흑정은 백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물은 웃음을 띠고 흑정을 쿡 찢었다. 어떤가? 우리나라의 발전이 대단하지 않은가?

흑정이 답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소. 사람의 편의를 위해 기계를 만들었지만 편리 하나에 불편 둘이 늘어나더군요. 기술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였지만 풍요 하나에 수탈 둘이 숨어있더군요. 인간적 삶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술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 둘을 낳더군요. 돈을 중심에 두자 물류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이 하나라면 불평등은 셋 넷 아니 다섯은 되는 것 같군요.

백물의 하얀 얼굴이 더 하얘졌다. 흑정은 계속했다.

남을 위해 일하는 자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괴로우면서 스스로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일이 없는 자도 일이 없어 괴롭지만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소. 과연 이 나라에는 자기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맞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오. 공장은 풍요를 만들지만 풍요는 언제나 자연과 사람을 수탈한 결과 만들어지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 식량을 생산하니 팔지 못하면 망하는 신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더군요. 이곳의 농사는 천지를 독으로 물들여야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온생명이 죽어가도 나만 돈벌면 그만이요. 하지만 생명의 그물을 오염시킨 이상 사람도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몸이 아프더군요. 그보다 앞서 사람들의 정신이 병든 것 같구요.

백물의 얼굴은 다시 붉어졌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미개한 놈이 감히! 그는 당장 흑정을 포박한 다음 배에 총포를 싣고 검은 나라에 쳐들어가 검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았다. 공장과 기계와 돈으로 만들어낸 힘 앞에 미개인의 마을은 속수무책 무너졌다. 한참 한껏 짓밟고 난 백물은 흑정을 잡아다 파괴와 살륙의 현장을 보여주었다. 보라! 이래도 우리 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흑정은 담담히 말했다. 그대들의 무력이 강함은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소. 그걸 미개라 부르는 거지요. 피와 살이 어찌 철과 돌보다 단단하겠소? 단지 더 따듯할뿐.

백물이 흑정에게 총을 들이댔다. 이놈이 끝까지!

그대는 우리 물질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정신을 죽이지 못하오. 우리 정신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오.

탕!

그날 이후 물질의 시대가 왔지만 백물은 악몽이 끊이지 않았다.

슬견설

범선(凡善)은 도살당하는 소가 애처로워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 범선의 결심을 들은 친구 지선(至善)은 말했다. 나는 전에 누군가 이를 잡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네.

범선은 약이 올랐다. 여보게 소는 덩치가 크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동물이라 애처롭다고 말한 것인데, 그까짓 이하고 비교하는가.

지선曰 덩치가 크건 작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든 없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살고자 하고 죽기를 싫어하는데 미물의 죽음이라고 어찌 더 하찮겠는가.

범선은 대꾸를 못했다.

지선은 이 일을 자랑삼아 무선(無善)에게 이야기했다. 무선曰 소의 죽음과 이의 죽음이 다르다는 생각도 잘못됐지만, 둘의 죽음이 같다는 생각도 잘못되었다. 중함도 경함도 없거늘!

왕의 요리

제육은 돼지를 잘 키웠다. 그의 돼지는 육질이 좋았다. 와공은 그릇을 잘 구웠다. 그의 그릇으로 요리하면 음식이 맛있었다. 불활은 불 조절을 잘하는 요리의 달인이었다.

어느날 왕은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셋을 불렀다. 최고의 고기, 최고의 그릇, 최고의 요리를 바꿔보거라!

셋은 긴장한 가운데 완성된 요리를 왕에게 올렸다. 고기를 입에 넣고 왕은 감탄했다. 맛있구나!

셋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제육은 생각하길 역시 내 고기가 최고지. 와공 생각하길 물론 내 그릇이 최고지. 불활 생각하길 내가 요리하면 당연히 최고지!

셋이 물러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가 임금에게 여쭙었다. 세 명 가운데 누구의 재주가 빼어나서 요리가 그렇게 맛있는지요? 왕은 한마디로 답했다.

내가 배고프니까 맛있지!

위대한 왕

허치(虛治)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 즉시 세상을 평안케 하는 제도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정치에 통달했던 그는 현명한 제도를 만들리라 결심했다. 역사에 통달했던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백성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소작을 금하라. 굶주림이 사라져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관리들의 뇌물을 엄금하고 부당한 공납과 부역을 걷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의 피로함이 줄어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화폐를 만들어 물자의 교환을 장려하라.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져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키워 변방을 안정시키라. 전란이 없어져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도적들을 잡아들여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치안이 확보되어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성현의 글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라. 도덕과 지식이 펼쳐지자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앞으로 왕정을 폐지하고 백성들의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공화제를 도입하라. 민주주의가 실시되자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은 왕을 열광적으로 칭송하였다.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제도가 건강하게 돌아가는지 감시케 하라. 부패와 비효율이 사라져 모두 왕을 칭송하였다.

침식을 잊고 주야로 애쓴 끝에 세상을 평안케 했으나 이제 허치도 늙었다. 백성들이 풍족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었기에 허치는 일생을 바친 데 아쉬움이 없었다. 이제 짐은 흰옷의 백성으로 돌아가노라.

허치는 선거로 뽑힌 자에게 직위를 물려주고 산으로 들어갔다. 나는 생을 받은 그 누구보다 큰 업적을 이루었다. 자부심은 그의 가슴에 뿌듯하였다.

산중생활은 텅비었다. 다가오는 생의 끝에 자부심은 차츰 공허에 의해 허물어졌다.

얼마 지나 어느날 허치의 오랜 참모가 찾아왔다. 허치問 그래 세상은 여여히 평온하던가?

참모答 아닙니다.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감시할 제도까지 만들지 않았느냐?

처음엔 임금께서 뜻하신대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나눠 받은 백성 가운데 영악한 자들은 어떻게든 남의 땅을 빼앗았고 가난한 자들은 다시 소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관리들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관리들은 백성들의 물자와 노역을 빼앗아 축재에 힘쓰고 있습니다.

화폐를 중심으로 물자교환이 활성화되고 물품이 많아졌지만 부자가 더 부자가 될뿐 가난한 이들의 삶은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군대는 부패안일하여 전투하는 법을 모릅니다. 변방의 적들과 내통하며 그들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도륙하고 도적질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 힘쓰는 장정들은 강도가 되었습니다.

삶이 궁핍하니 백성들은 현자의 책을 불쏘시개로 쓰고 있습니다.

선출된 이들은 나라를 평온케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음 선거에 이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집권기 동안 한몫 챙기려는 모리배가 판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감시하라고 만드신 백성 대표들은 이권집단으로 변모하여 자기 권력을 영속시키는 데 혈안입니다. 부패를 감시하라고 만든 기구가 가장 먼저 부패하였습니다.

참모는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주군의 평생 업적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고하기가 황송하였다.

참모가 떠난 뒤 허치는 가슴이 텅비었다.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허탈감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무작정 길을 나섰다.

산으로 들로 며칠 걷다보니 큰 물이 나타났다. 뱃사공은 허치를 보더니 노를 저어 유유히 밀려왔다. 인적 없는 이곳에 어디로 가십니까?

정처 없던 허치는 성큼 배에 올랐다. 웬지 모를 편안함이 참 오랜만에 찾아왔다. 사공問 어르신은 왜 이곳을 방랑하십니까?

늙은 허치는 조심할 것도 거리낄 것도 없어 모두 이야기했다. 사공은 허치가 왕이었다는 데도 놀라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저었다. 다 듣고 사공은 입을 열었다.

어진 왕이시여
제도는 세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제도 속에 부패가 없기 바라는 것은
사람 속에 악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감시자를 세우면
감시자의 감시자가 필요하고
다시 감시자의 감시자의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왕의 위대한 업적은
스쳐가는 봄비처럼
목마른 백성을 잠시 축여준 것으로 족합니다

현명한 허치는 그 말을 이해하였다. 세속의 본질을 통찰하였다. 자기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생의 의미로 삼으려던 애착도 내려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공은 빙긋 웃더니 曰 왕께서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시는군요. 강 건너편에 내려드릴테니 거기서 다시 해보시지요.

배가 피안에 닿더니 배도 사공도 사라지고 왕은 어느새 생룡활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있었다. 일주일 뒤에 즉위식이 거행될 예정이었다. 늙은이의 지혜를 품고 젊은이의 몸으로 돌아간 허치에게는 다시금 세상을 평온케 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번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칠 개혁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즉위식 전날 그는 부왕께 아뢰었다.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부왕은 경악하였다. 왜 그러느냐. 너는 총명하고 의로운 바탕을 지녔다. 역사에 남을 왕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너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잡을 것도, 바로잡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어질고 공평한 정치를 펼치면 세상은 평온케 된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

의미가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찌할 생각이냐?

제도는 일년을 버티지 못하고, 권력은 십년을 넘기지 못하고, 나라는 백년을 가지 못하지만, 양심은 천년 넘게 흐릅니다. 마음이 청정한 길을 닦으려 합니다.

바뀌가며

오래 같이 산 노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었다. 아내가 다그쳤다.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당신은 파렴치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한동안 몰리던 남편도 반격했다.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지만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줬소? 나도 인생에 낙이 필요했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남자친구를 마련했다. 남편이 아내를 다그쳤다.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당신은 파렴치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아내는 기세등등하게 반격했다.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줬소? 나도 인생에 낙이 필요했다고.

둘의 싸움이 심해져 중재자가 나섰다. 옛날에 중매 했던 친구였다. 친구는 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 판단할 수 없었다. 둘의 행동이 똑같았기 때문이다. 오랜 사색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친구들아 난 너희 둘의 행복을 원해. 서로가 넌 다른 사람 만나면 안돼 라는 생각을 넌 누구든 만나도 돼 라고 바꾸면 어떨까.

부부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지원했고,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도왔다. 남편은 아내의 남자친구 먹일 요리를 같이 했고, 아내는 남편 여자친구의 생일선물을 사러 같이 다녔다.

그러다보니 둘이 싸울 일이 없어지고 다정해지기 시작했다. 남편 농하길 여보 그렇게 요리를 못해서야 그이가 만족하겠어 하면 아내 농하길 여보 그 따위 선물 고르는 눈으로 어떻게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어.

몇달 지나자 부부는 서로가 제일 좋다며 각각의 연인과 헤어졌다.

갑자기 이별을 통고받은 남친과 여친은 항의하기 위해 부부의 집을 찾아왔다. 우연히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집을 찾아와 딱 만났다. 불꽃이 튀고 둘이 사랑에 빠졌다. 내친 김에 그 집에 들어갔다.

넛의 모임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들 넛 모두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의 도덕을 통달한 자들이다.

술하고 안주 좀 가져오소! 넛은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편해졌다.

돌덩이라고 생각했는데 허공이었어!

어떨 때는 착한 사람들

네명의 상인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사막을 건너고 있었다. 태양 아래 목숨을 건 행렬이었다. 조난당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낙타에 태워 사막을 건너주기로 하였다. 화근은 여인의 아름다움이었다.

구법(拘法)은 법을 무서워했다. 일행이 진행하다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땅에 도달하자 무법(無法) 지대라는 뜻말이 나왔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그날밤 여인을 겁탈했다.

속과(束果)는 인과응보를 믿었다. 사막이 더 험해지자 땅에 무과(無果) 지대라는 뜻말이 나타났다. 마음에 부담이 없이 그날밤 여인을 범했다.

예신(隸神)은 신의 벌을 두려워했다. 신도 버린 불모지에 이르자 무신(無神) 지대라는 뜻말이 나타났다. 그날밤 거리낄 것이 그는 여인을 강간했다.

양심(良心)은 그냥 착한 사람이었다. 생명을 용납할 것 같지 않은 가장 혹독한 사막의 심장부에 이르자 무심(無心) 지대라는 뜻말이 나왔다. 양심은 콧방귀를 뀌고는 뜻말을 뱉아서 부숴버렸다.

구사일생으로 사막을 건너 일행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그곳 사람들이 몰려나와 여인에게 경배했다. 그녀는 이곳의 여왕이었다. 여왕은 바로 구법, 속과, 예신을 처형해버리고 양심을 극진히 대우했다. 법과 인과와 신의 축복을 모두 받은 것은 양심뿐이었다.

잘남과 못남

아고(我高)는 자신이 잘났고 남들은 못났다고 믿었다. 일이 잘 풀리면 자기 덕이고 안되면 남 탓이었다. 아고가 현자에게 여쭙었다. 사람들은 왜 모두 저를 싫어할까요? 괴롭습니다.

아저(我低)는 자신이 못났고 남들은 잘났다고 믿었다. 일이 잘 풀리면 남들 덕이고 안되면 자기 탓이었다. 아저問 저는 왜 제 자신이 싫을까요? 괴롭습니다.

현자答 아고 자네는 남들을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나만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들을 사랑하게. 아저 자네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남들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니까 그런 것 아닌가. 나만 못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게.

아고와 아저는 멍하니 앉았다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제가 잘났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부정합니까?

제가 못났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부정합니까?

신발을 다오

흠나라 사람들은 짐승을 사냥하고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다. 뜨거운 땅이라 옷이 필요 없었고, 흠과 풀을 열기설기 엮은 집으로 족했다. 돈을 몰랐지만 마을에는 늘 웃음이 흘러나왔다.

멀리 떨어진 돈나라 사람이 흠나라에 여행을 왔다. 그는 이곳 사람들이 풀잎으로 허리를 가리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런대로 착한 마음씨를 가졌던 그는 당장 배에 신발을 가득 실어 보내줬다. 무상원조였다.

흠나라 사람들은 처음 보는 신발이 신기하였다. 꼭신하고 죄어주는 느낌이 희한했다. 태양으로 달궈진 모래 위를 걸어도 뜨겁지 않았다. 신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신발은 금방 헤지고 터졌다. 돌과 모래, 숲과 강을 거침없이 헤치고 다니는 이들의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몇주 안 지나 새 신발로 바꿔야 했다. 신나게 달리며 사냥하다 보면 밀창은 금방 입을 벌렸다. 하나둘 신발을 쓰고 버리다보니 드디어 재고가 바닥났다.

신발 없이는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땅은 뜨겁고 따갑고 아팠다. 몸도 불편했지만 마음이 더 불편했다. 맨발로 돌아가는 것이 미개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신발을 구하자고 외쳤다.

한 청년이 대표로 뽑혔다. 그는 큰 산과 큰 물을 건너 돈나라를 찾아갔다. 신발이 있는 곳을 물었더니 어렵지 않게 매장이란 곳을 찾았다.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신발을 가져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을 구할 방법이 무엇일까? 돈나라 사람들이 설명해주었다.

돈을 구하려면 물건을 팔아야지요.

무슨 물건을 파나요?

당신 나라에는 이곳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구하지요?

일을 해야지요. 하지만 당신들처럼 교육도 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구할 거요.

그럼 어떡하지요?

음... 정말 절박하면 몸을 팔 수 있지요. 젊은 여자들은 매춘하고, 힘센 남자들은 깡패를 하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장기를 팔고.

윽! 청년은 충격 받았다. 깊은 고민에 잠겨 사색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다. 그렇다. 우리는 여태껏 신발 없이 잘 살아왔다. 신발 없는 생활로 돌아가자.

그는 단박에 흙나라로 돌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신발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을 구할 방법은 없다. 옛날에 모두 신발 없이 잘 살았으니 그 생활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게 있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버럭 소리쳤다. 이놈아 그 먼 곳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냐! 사람들이 웅성이며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다.

너나 신발 없이 살아!

마을 사람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청년을 콧발로 밟았다.

씨앗을 다오

풍풍국(豊風國)은 수천년 농사를 지어온 나라였다. 조상 대대로 쌓인 재래 기술과 지식이 상당했다.

기기국(技機國)은 최근 백년 동안 기술과 기계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였다. 기계 농약 비료 씨앗 기술이 뛰어났다.

기기국 전문가들이 풍풍국을 찾았다. 당신들의 농사는 한참 후진적이군요. 비과학적 비효율적 비위생적입니다. 우리 기술을 배우세요. 우리 씨앗과 기술을 사용하면 수확이 세배로 늘어날 겁니다. 식량이 세배인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굶주리는 사람이 사라질 겁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먹이려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기국은 재애모(災愛母)라는 씨앗을 소개했다. 재애모는 재래종자에 비해 수확이 세배나 많았고 질병에도 강했다. 풍풍국 사람들은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다. 수확이 세배라니! 이건 기적이다!

풍풍국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일단 빛을 내서 종자를 샀다. 소출이 세배라는데 빛 좀 내면 어떨까? 세배로 돈 벌어서 금방 갚으면 된다!

농부들은 주저없이 재래종자를 버리고 바쁘게 재애모를 심었다. 기기국 전문가들은 친절하게 자문을 제공해주었다.

바로 심지 말고 땅을 깊이 갈고 심어야 돼요. 잡초도 제거하고 흙도 부드러워줍니다.

땅가는 것은 우리도 잘 하지요. 힘센 소가 있어요.

아니요. 그깟 소로 끄는 쟁기 말고 기계의 힘을 써야지요. 우리가 개발한 경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풍국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트랙터를 샀다. 과연 중장비는 흙을 깊이 푹푹 파서 뒤집었다. 기계의 힘과 속도는 감동적이었다. 물론 기계값 연료값 부품비용 수리비용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전문가가 다시 조언했다. 심고 그냥 둔다고 크게 자라는데 아니에요.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비료요? 우리 마구간에도 외양간에도 뒷간에도 퇴비랑 두엄이랑 다 있잖아요. 그걸 뿌리면 됩니다.

아니요. 그건 비과학적 비효율적 비위생적이구요. 그런거 말고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과학적 효율적 위생적 비료가 있어요.

풍풍국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화학비료를 샀다. 비료를 주자마자 식물들은 시퍼런 색으로 변하면서 무섭게 성장했다. 농부들은 탄성을 질렀다.

너무 급하게 커서 물렁물렁해진 식물에 자꾸 벌레가 꼬였다. 농부들은 가우뚱하며 ㄷ 벌레 피해가 이렇게 심한건 처음인데?

기기국 전문가가 거들었다. 약을 쳐서 벌레들을 죽여야 됩니다.

풍풍국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농약을 샀다. 농약을 치는 순간 식물을 갉아먹던 벌레들이 나자빠졌다. 농부들은 박수치며 좋아했다. 해충의 천적 무당벌레 사마귀 잠자리 말벌 거미 심지어 꿀벌도 돼지고 농약 먹고 죽은 벌레를 먹고 새들이 덩달아 죽는 것이 짹짹하고 그리고 혹시 농약이 흘러든 물을 우리가 마시면? 하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이게 과학이고 새로운 시대라지 않는가!

재애모들은 재래종보다 크고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다시 기기국 전문가가 간섭했다. 이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관개시설을 설치하세요.

그건 우리도 있지요. 수천년 동안 써오던 수로랑 저수지가 다 있습니다.

아니 저수지는 불편해서 안돼요. 농장마다 강력한 펌프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세요.

풍풍국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기계를 설치했다. 기계는 강력한 힘으로 물을 끌어올려 밭에 뿌렸다. 놀라운 광경에 농부들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지하수를 마구 퍼쓰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갔다. 우물물들이 마르고 여기저기 개울물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마을 곳곳의 땅이 푹푹 꺼졌다. 숲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나무가 죽었다.

풀들이 한참 자라는 계절이 오자 전문가는 말했다. 풀을 잡아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작물한테 가야할 양분과 물과 햇빛을 다 가져가요.

풀은 우리도 늘 잡아왔지요. 낫으로 베거나 손으로 뽑거나 흙을 갈거나 짐승들이 먹어치우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 원시적인 방법말고요. 제초제를 쓰세요. 한번 뿌리면 풀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풍풍국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제초제를 샀다. 제초제는 놀라웠다. 지독한 잡초들이 모조리 까맣게 타죽었다. 신기한 것은 제초제를 맞았는데 재애모는 끄떡없는 점이였다.

그게 우리 기술이지요. 재애모는 우리 제초제를 맞아도 죽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낸 씨앗이라구요. 전문가는 뿌듯한 표정으로 자랑했다. 맘껏 뿌리세요!

그렇게 기대로 가득한 농사가 끝났다. 역시 수확이 세배였다! 농부들은 꿈이나 생시나 뺨을 꼬집으며 한가위 잔치를 벌였다.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제 슬슬 취기도 가시고 결산할 때가 되었다. 농부들은 주판을 텅겨보더니 고개를 가우뚱했다. 돈을 세배 번 것은 맞는데... 쓴 돈도 세배여!

전문가가 다시 아는체 했다. 아 그건 내년엔 농사를 더 잘 지으시면 해결됩니다. 농부들 맞장구치길 맞아 이렇게 수확이 많은데 당연히 해결되겠지.

하지만 다음해에는 수확은 두배, 쓴 돈은 네배였다.

그 다음해는 수확은 더 줄고, 쓴 돈은 다섯배였다.

농부들의 빚이 커졌다. 독을 넣으면서 더 많은 작물을 뽑아내자 흙은 죽어갔다. 하지만 돈을 주고 농약 비료 씨앗 사오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했다. 옛날 농사법들은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늘어난 식량을 늘어난 인구가 공평하게 나눠먹지도 않았었다. 식량 생산이 쟁충 뛰자 남아도는 음식을 버려야 했다. 희한하게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서 마구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있었다.

전문가가 혀를 찼다. 거보세요.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다니.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더 효율적인 씨앗, 더 독한 농약, 더 강력한 제초제, 더 무거운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토를 달았다. 아니 여기 남아도는 식량을 여기 굶는 곳으로 보내면 되지 않수?

전문가가 기겁을 했다. 그건 시장을 파괴하자는 얘기입니다!

농부들의 가정부터 박살나기 시작했다. 빚을 갚지 못해 도망가거나 자살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벌자는 신념이 흘러넘치는 시골 마을에는 트랙터 트럭 킬러 툴털털 기계 소리 넘치고, 여기저기 케미칼 뿌리니 뿌렸다. 먹이사슬은 농약에, 물은 제초제에, 흙은 비료에 오염됐다. 곤충이 사라지고 산새들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괴질에 걸리고 기형아가 태어났다. 농부들은 농약 뿌린 작물은 시장에 팔고 자기 식구가 먹을 작물은 따로 키웠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괴로움에 잠겨 깊이 고민했다.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렇다! 우리는 케미칼과 재애모와 메카닉이 없이도 잘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된다.

젊은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자기 주장을 역설했다. 근심으로 주름진 어른들의 얼굴에 황당함이 스쳐갔다.

야 이놈아 너나 농약없이 농사지어!

사람 똥오줌을 어떻게 만지냐!

우리더러 호미로 풀을 뽑으란 거냐!

뭇이여 소로 밭을 갈라고?

지하수를 뽑으면 되는데 왜 힘들게 저수지 물을 쓰냐?

재애모 씨앗이 저렇게 좋은데 왜 재래 종자를 심어!

안 그래도 빗더미 스트레스에 눌린 어르신들은 젊은이를 다구리해버리고 자꾸만 자꾸만 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갔다.

내 뜻은 신의 뜻

갑국과 을국이 전쟁을 했다.

갑국의 왕은 병사들을 고무했다. 우리는 정의롭고 을국은 마귀다. 을국을 무찌르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을국의 왕은 병사들을 고무했다. 우리는 정의롭고 갑국은 마귀다. 갑국을 무찌르는 것이 신의 뜻이다.

밤이 되어 총성이 멈추면 양국의 병사들은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신의 뜻에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저쪽 마귀 세력을 쳐부수게 하소서. 신은 양쪽에서 올라오는 같은 기도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갑국 병사와 을국 병사가 동시에 전사하여 하늘나라로 갔다. 갑국 병사가 말했다. 여보게 당신들은 왜 마귀의 편에 서는가? 을국 병사가 받아쳤다. 무슨 소리. 당신들이야말로 왜 마귀 편에 서서 싸우는가?

둘은 옥신각신하다가 신 앞에 이르렀다. 갑국 병사가 신에게 호소했다. 저희 갑국은 신의 뜻을 따라 마귀 세력 을국과 싸웠음을 이자에게 설명해주십시오. 을국 병사가 질세라 외쳤다. 저희 을국이 신의 뜻을 따라 마귀 세력 갑국과 싸웠음을 이자에게 설명해주십시오.

신은 착잡하게 둘을 바라보다가 탄식했다. 너희 두 왕도 내 뜻을 모르는데 너희가 어떻게 알라! 자기 뜻을 내 뜻이라 일컬은 두 왕부터 지옥에 갈 것이다.

사랑을 키우다

수행자는 사랑을 키우고자 했으나 속이 몹시 좁았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수행에 정진했다.

처음에 그는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했다. 남에게 베풀지 못했다.

마음을 닦자 그는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직 다른 가족을 배려하지 못했다.

마음을 더 닦자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다.

마음을 더 닦자 자기 종교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직 다른 종교인에 대한 멸시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을 더 닦자 자기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직 다른 나라와 이민족을 모두 껴안기 힘들었다.

마음을 더 닦자 모든 인류를 사랑하게 되었다. 드디어!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모자라다고 느꼈다.

마음을 더 닦자 모든 동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마음을 더 닦자 모든 식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마음을 더 닦자 모든 미생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마음을 더 닦자 모든 무생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결국 사랑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자 그는 치우침도 흔들림도 없는 곳으로 갔다.

사후세계 골라먹기

다사(多死)가 죽었다. 영혼이 빠져나오더니 자기 몸이 내려다보였다. 시체 주변에 가족들이 울고 있었다. 다사가 불러도 이들은 듣지 못했다.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구나!

그때 갑자기 뒤에서 올라미가 날아왔다. 억!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낀 사내가 씩 웃었다. 다사 선생 미안합니다. 저는 저승사자예요. 이런 거친 수단을 안 쓰면 도망가는 귀신들이 많아서요. 저승사자는 다사의 팔을 꼭 잡더니 순간이동으로 저승에 도달했다.

저승에 가니 기다란 줄이 있었다. 특별한 종교가 없었던 다사는 궁금했다. 저 줄의 끝에는 신이 앉아서 심판하는가?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는가? 아니면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는가? 천상계와 극락은 있을까? 어느 종교가 옳았을까?

저승사자에게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다. 요즘은 인권을 중시해서 죽은 사람의 생전 신앙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지요. 하나의 종교를 강요하면 민원이 굉장해져요.

그게 무슨 소리지요?

살았을 때 믿었던 대로 된다는 겁니다. 대략 백집 전의 일이지요. 아주 똑똑한 인물이 왔어요. 그는 사후세계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따져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보스 염라대왕도 아주 진땀 뺐어요. 하나의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죽어보지 않으면 사후세계를 모르는데 살아서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논리를 펴는데 저승의 법관들도 할 말을 잃었지요. 아 그 친구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결국 우리 저승에서 온갖 종교가 약속한 모든 사후세계를 만들었지요. 저희 저승 공무원들 모두 그걸 기획하고 만들어내는데 십년 감수했어요. 예산이

장난 아니게 들어왔지요. 제가 보기엔 포퓰리즘 측면이 있어요. 허허. 아 제가 이런 말했다는 건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공하는 사후세계 서비스가 몇개나 됩니까?

세계 주요종교가 약속한 것은 모두 구비했구요. 군소종교도 하나씩 다 포괄하는 중이랍니다. 자꾸 새 종교가 나타나서 골치가 아파요. 종교의 자유, 종교 차별 운운하면서 데모하고 그래요. 아이구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의 천당들을 다 다닐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나갔지요.

순간 저승사자 얼굴이 굳어졌다. 다사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줬다고 직감했기 때문이다. 어... 그러면 다사 선생은 종교가 됩니까? 여기 장부에는 무교로 돼있는데...

다사는 네 무교입니다 라고 입에서 튀어나올뻔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저는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승사자는 기분이 상한 듯 입을 삐죽 내밀더니 허참 다사 선생도 인권주의자시군요.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침묵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는 공무가 바쁘다며 가버렸다.

다사 차례가 되어 염라대왕 앞에 섰다. 다사 선생은 생전 무슨 종교를 믿으셨지요?

네. 저는 영생불사교 신도였습니다.

뭔가 골치아픈 일을 예감한듯 염라대왕 미간이 찌푸러졌다. 네? 그건 처음 듣는데요. 죽고나면 어떻게 될줄 믿으셨습니까?

다사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저는 영혼은 물론 육체의 영생불사를 믿습니다. 다시 저를 제 몸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네? 염라대왕이 경악했다. 이걸 너무 나가신 겁니다. 이러시면 이승과 저승의 질서가 무너져요.

다사는 거꾸로 소리를 높였다. 사후세계는 원래 이렇게 독재입니까? 제가 평생 가졌던 믿음을 수포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염라대왕은 눈물 흘리며 명령을 내렸다. 저승사자야 다사 선생을 다시 그의 몸에 넣어주어라. 염라대왕은 그간의 직업 스트레스가 밀려와 그 길로 사직서를 제출해버렸다.

저승사자가 쩍싸게 다가와 다사에게 속삭였다. 선생 머리가 비상하시군요.

번쩍 정신 차리니 다사 몸 속이었다. 가족들은 죽었던 다사가 살아나자 충격과 기쁨에 휩싸였다. 기적의 사나이, 죽음에서 돌아온 사나이 다사는 유명해졌다.

다사는 가는 곳마다 사후세계에 대해 설명해주며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또 무시하지도 못했다.

다사로선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언제고 돌아올 자신이 있었다. 1년 더 산 뒤 다시 죽을 시간이 되자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시간이면 사후세계 후딱 다녀올 테니 내 몸을 묻지말고 기다리고 있어.

가족들은 이전과 같은 기적을 기다렸다. 하지만 한시간 두시간이 흐르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이 되어도 다사의 몸은 꿈쩍하지 않았다.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 가족들은 견딜 수 없었다. 아니 영혼이 돌아와도 육체가 썩었는데 어찌할꼬! 가족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의 몸을 물어버렸다.

자유로운 영혼

풍마(風馬)는 바람 같은 야생마의 영혼을 지녔지만 심성이 착해서 부모님을 거역하지 못했다.

어릴 때 풍마는 부모님께告 저는 학교가 갑갑해요. 제가 혼자서 하고 싶은 공부와 놀이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 아니다 풍마야. 일단 대학을 가거라.

대학을 간 풍마가 말했다. 여기서 받는 교육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니다 풍마야. 일단 졸업장을 받거라.

졸업 후 풍마曰 이제 바람 같은 삶을 살겠어요.

아니다 풍마야. 일단 직장을 가져라.

회사에 들어가 몇년이 지나 풍마曰 봉급 받으며 사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니다 풍마야. 일단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한 풍마曰 결혼이 행복하면서도 갑갑합니다.

아니다 풍마야. 일단 아기를 낳아라.

아기를 하나 둘 셋 낳은 풍마는 그들을 돌보느라 또 몇해가 훌쩍 지났다. 이제는 제 책임을 다 했지요?

아니다 풍마야. 니 집을 가져야 한다.

봉급쟁이 돈으로 아주 오래 걸려 집을 마련했다.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제 할 일은 다 되었나요?

아니다 풍마야. 직장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거라.

직장 생활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는 마침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존경받는 위치였다. 이 정도 이루었으면 족하지요?

아니다 풍마야. 노후를 준비해야지.

노후 준비란 은퇴 후 수십년 놀고먹을 돈을 모으는 것이었다. 다시 그 준비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신없이 일했다.

노쇠한 부모는 임종을 맞았다. 풍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들이 너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는지 안다. 하지만 이 모두 너를 위해 한 일이니 이해해다오.

부모가 돌아가시자 아들딸들이 제법 어른스럽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셨는지 압니다. 저희들 때문에 오랜 세월 일만 해오셨습니다.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풍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머리는 하얗게 섰고 몸에는 기운이 빠졌다. 내 나이 육십에 어느 바람을 따라가겠는가? 알래스카의 불곰처럼 아마존의 재규어처럼 시베리아의 늑대처럼 살고 싶었다. 한번뿐인 생애 굴레를 씌운 것은 나인데 내가 누굴 탓하겠는가? 슬프고 슬프다.

하지만 역시 호연지기의 풍마였다. 체념과 비관은 그의 사전에 없었다. 대학 나와 집 사고 가정 이루고 좋은 직장 최고 자리까지 오르고 노후를 편히 보낼 넉넉한 돈을 다 버느라 세월 다 보냈지만 그는 백발 성성 휘날리며 히말라야를 향해 나섰다.

마음의 병

병자는 태극권의 고수를 찾아왔다. 태극권이 치유에 좋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태극권으로 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두고 볼 일입니다.

병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했다. 일단 가르쳐주십시오.

고수는 가장 먼저 이완을 가르쳤다. 병자의 몸은 나무 작대기처럼 뻣뻣하여 부드러운 곳이 없었다. 병자 묻길 저는 왜 이완이 안되지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힘이 안 빠지는 거랑 마음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불가분의 관계지요.

고수는 가라앉힘을 가르쳤다. 병자의 몸은 기운이 들떠서 호흡이 가쁘고 늘 조급했다. 問 저는 왜 가라앉힘이 안되지요?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가라앉지 않는 것과 마음과 무슨 관계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고수는 신체의 정렬을 가르쳤다. 병자의 몸은 관절마다 모두 비뚤고 어긋나 있었다. 저는 왜 바로잡음이 안되지요?

마음이 비뚤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어긋난 것과 마음이 무슨 관계지요?

불가분의 관계지요.

고수는 느낌을 가르쳤다. 병자의 움직임은 거칠고 급하고 산만했다. 왜 저는 느리게 움직이지 못하지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느리게 못 움직이는 것과 마음이 무슨 관계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고수는 힘을 보여주었다. 고수說 가만 있을줄 알아야 움직일 수 있고, 혼자 움직일 수 있어야 상대와 같이 움직일 수 있지요.

네?

먼저 혼자 서서 힘을 발생시키고(站庄), 혼자 움직이며 힘을 키우고(套路), 상대와 움직이며 힘을 연습합니다(推手). 장정 다섯이 밀어도 밀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根). 온몸이 흠어지고 통합되면서(開合) 힘을 발출합니다. 그 힘이 또한 자기 몸을 치유하고 강화하는 힘입니다(養生). 병자의 몸은 각 부위가 모두 굳고 뜨고 어긋나고 흠어져 힘을 발생시키지 못했다.

고수는 병자를 위해 수업 때마다 치유력 있는 약초나 야생버섯 등으로 차를 달여왔다. 병자는 훌쩍훌쩍 얻어마시며 한번도 답례하지 않았다. 고수는 병자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찾아가 살피고 몸을 풀어주고 자료를 읽어보라고 주고 정성을 기울였다. 병자는 당연시 여기며 고마워할줄 몰랐다. 고수는 그러한 각박한 병자의 마음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한달 두달이 지났는데 병자는 차도가 없었다. 그가 물었다.

저는 왜 병이 안 낫지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과 제 마음은 무슨 관계입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병자는 불쾌했다. 아니 제 마음에 무슨 병이 있다는 겁니까?

몸의 병은 살아온 결과이고, 살아온 것은 마음이 이끈 결과입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들떠있고 뒤틀려있고 조급하면 몸도 따라갑니다. 감사할줄 모르고 성찰할줄 모르고 사랑할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며 몸도 그를 따라 식어갑니다.

마음에 따뜻함과 베풀음을 넣어놓으십시오. 자기 고통이 심각해질수록 남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자기 이익에 민감해질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병자는 몹시 거슬렸지만 무언가 마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것이 삶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과보와 업장의 무게를 이겨내는 수행에 매진했다. 신체 훈련은 곧 마음 수련이었고, 동작 연마는 곧 마음 성찰이었다.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표독한 성향이 몸의 병을 낳았음을 깨달았다.

고수는 흐뭇하게 미소지었다. 그렇지요. 수행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우십시오. 몸의 때도 마음의 때도.

다시 한달 두달이 지나자 병자의 몸은 치유되었다. 수행자로 거듭난 그는 경망스럽게 기뻐하는 것도 없이 담담하게 읊었다.

병은 삶의 결과이고
삶은 선택의 결과이고
선택은 내가 내린 것
조건과 원인에 따라 일어난 일에
타하고 슬프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선한 씨앗을 뿌려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들어가십시오.

설원의 법칙

설원은 순백의 낙원 때로 굶주림의 감옥이었다. 얼음이 자꾸 녹아 사람이 설
곳이 줄었다. 사냥터가 좁아지고 동물들이 사라졌다. 그해 겨울은 특히
혹독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어둠을 응시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른의 생각을
짐작하고 있었다. 수천년 빙하 위를 살아온 사람들은 부러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손자 손녀는 마냥 철없이 배고프다며 응양거렸다. 갸느다란
손녀의 종아리가 맘이 아팠다.

대자연이 화가 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인지 건넌말인지 모를 소릴했다.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기억을 감았다. 내가 저맘때 나의 할아버지도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셨지.

모두 잠든 야음 할아버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평생 아껴온 칼을 아들
머리맡에 두고 길을 나섰다. 문이 열렸다 닫히며 잠시 찬바람이 일고 아들은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평생 사냥해온 설원이었다. 할아버지는 칠혹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꿈의
계곡을 향하여.

이 부족에게 꿈은 공포와 숭배의 대상이자 사냥의 대상이었다. 사냥개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꿈의 괴담이 마을마다 전해왔다. 사람은 코와 귀가 얼어
떨어질 눈보라 속을 어슬렁거리며 사냥하는 꿈은 인간으로서 영원히 넘볼 수
없는 강인함이었다. 그러나 힘을 합쳐 이 짐승을 쓰러뜨리면 사람들은 자기
내부의 무한성에 희열했다. 꿈을 죽이면 곧 신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다섯 마리의 꿈을 죽였다. 총이 없던 시절 오직 창과 활로
꿈을 쓰러뜨린 세대였다. 요즘은 꿈을 잡는 일이 거의 없었다. 무기는
좋아졌는데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드디어 꿈의 계곡에 도착했다. 외투를 벗자 칼바람이 뱃속을 파고들었다. 죽음 앞에 고통은 얼마나 무의미한가. 곳곳이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여러 생각이 스쳤다. 엄마 아빠가 손짓하고 사랑했던 아내가 속삭였다. 괴로웠던 모든 기억도 잔잔한 미소였다.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바람 소리가 매서워지자 생각 소리는 잦아들고 할아버지는 고요에 들었다.

얼마나 있었을까. 저멀리 언덕 아래. 사냥으로 단련된 눈은 설원 위의 움직임에 포착했다. 동그랗고 하얀 털복숭이가 재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걷는 모습이 곰일 수 없었다. 아들이었다.

할아버지 얼굴은 착잡했다. 설원의 법칙을 모를 나이도 아니건만 잔정에 사로잡혀 저러는 아들이 못마땅하다가 또 부자의 정이 사무친다. 아들은 허벅지까지 푹푹 눈에 빠지면서 급한 걸음에 수시로 꼬꾸라졌다.

쫓쫓 조심해야지. 할아버지는 서른 넘은 아들이 애기다.

그렇게 아들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갑자기 등 뒤에서 무시무시한 기운이 다가왔다. 그것은 비인간, 길들지 않는 북극의 힘이였다. 결눈으로 보니 거대한 암컷이 다가오고 있었다. 종종 따라오는 새끼의 다리가 펍 가늘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는 곳까지 왔다. 아버지 등 뒤로 거대한 백곰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총을 겨누었다.

안된다! 할아버지가 다급히 소리쳤다.

아버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곰을 죽이겠습니다!

쏘지마라!

지금 쏘지 않으면 덮칠 겁니다!

안된다! 곰을 쓰러뜨려도 난 널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쏘겠습니다!

안된다! 새끼가 있다!

아버지!

곰은 드디어 육중한 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아들의 손가락은 방아쇠에서 떨리고 있었다.

하얀 눈밭에 불음이 뿌렸다.

병을 고치는 나무

병을 고치는 힘을 지닌 나무가 있었다. 수백년간 심산유곡을 지켜온 신비수(神秘樹)였다. 많은 불치병자들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병이 씻은듯이 나왔다.

소여(素與)라는 처녀는 근심으로 인해 폐병이 있었다. 신비수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왔다. 심성이 착한 그녀는 발걸음마다 흙을 살며시 딛으며 벌레를 피했다. 오랜 산행 끝에 신비수를 찾은 그녀는 먼저 무릎 꿇고 뿌리에 입을 맞추었다. 거대한 나무에는 피보다 붉은 열매가 맺혀있었다.

열매를 취하는 소여의 손길은 삼가함이 가득했다.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열매는 필요한 최소한만 따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귀한 열매를 가져가서.
고맙습니다. 제게 이로움을 주셔서.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나무여!
행복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무에게 정성과 공경을 담아 절을 하고 소여는 돌아왔다. 귀한 열매를 먹은 그녀의 병은 완쾌되었다.

그 소문을 듣고 탁취(濁取)라는 처녀도 신비수를 찾아갔다. 탁취는 탐식으로 인해 비위에 병이 있었다. 거침없이 수풀을 헤치고 풀벌레들을 짓밟으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신비수를 찾은 탁취는 허겁지겁 달려들어 열매를 따다. 힘들게 온 산행인데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었다. 나무 가지를 마구 꺾고 부러뜨리며 열매를 따다. 거친 손길에 보드라운 열매들이 터져 탁취의 옷과 입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거참 열매가 왜 이리 성가시게 자꾸 터지는 거야. 왜 이리 잔가지가 많아. 왜 이리 따기가 힘들어. 왜 이리 깊은 산속에 있는 거야.

투덜거리며 탁취는 열매를 가득 담은 자루를 들고 돌아왔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탁취는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 소여가 나왔듯이 이제 나도 나오리라!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열매를 아무리 쳐먹어도 그녀의 병은 낫지 않았다.

뭐야 그 나무 가짜잖아! 가서 베어버리겠어!

채움과 비움

왕은 몸이 안 좋았다. 뚜렷한 병은 아닌데 피곤하고 힘이 없었다. 상처가 나면 아물지 않고 속으로는 구석구석 염증이 생겼다. 식욕이 없고 밥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았다. 속은 불편하고 관절은 쭈셨다.

사냥꾼이 신(蜃)이라는 기이한 짐승을 잡아왔다. 이 짐승은 영물이오니 그 비장을 꺼내 드셔보소서. 이 짐승을 먹은 야인은 백살이 넘었는데 산을 뛰어다니며 사냥합니다.

왕은 영물을 죽여 비장을 취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심마니가 기(芪)라는 심산유곡의 약초를 캐왔다. 이 풀은 신약이오니 달여서 드소서. 이 약초를 먹은 농부는 백살이 넘었는데 밭을 갈고 있습니다.

왕은 달여 마셨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술사가 루(醜)라는 환을 만들었다. 돌의 정수 미(微), 살의 정수 단(蛋), 물의 정수 비(肥)를 모았으니 식후 꾸준히 드십시오. 이 알약을 먹은 백성들은 모두 살이 오르고 힘이 나며 병이 사라졌습니다.

환을 꾸준히 상복하자 왕의 몸은 더 비대하고 부대졌다.

왕은 분노하여 셋을 불렀으나 이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간 뒤였다. 물론 포상금을 다 챙긴채.

낮에 처리하는 정사(政事)도 밤에 치르는 정사(情事)도 모두 싫었다. 지혜로운 정승도 패기 어린 신예도 귀찮았다.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간신들을 가까이했다. 꽃처럼 피어나는 궁녀들은 성가셨다. 젊음과 활기를 보면 질투와 분노가 솟았다.

짐의 나이가 과히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어느날 현자가 찾아왔다. 실망을 거듭해온 왕의 말에 가시가 돋았다.

그대는 또 무엇을 팔려고 왔소?

저는 팔 것이 없습니다.

몸에 좋은 무언가를 들고 왔을 게 아니요?

들고 온 물건은 없고 고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들어감이 있으면 나감이 있어야 하고, 채움이 있으면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음양을 배웠으면 누구나 아는 기본 아닌가?

왕의 몸에는 들어가기만 하고 나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듯하오. 섭생에 대해 적용해본 적은 없소.

늘 음식이 몸안에 있으니 몸이 피로하고 피로는 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차갑고 무거운 것이요?

그렇습니다. 차가운 것에 대해서는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책은 몸 밖의 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의복이나 난방이나 온수로 몸을 덥히는 것입니다. 중책은 몸 안의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열을 내는 것입니다.

상책은 무엇이요?

상책은 몸 안의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연소기관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체내의 화로는 공기(氣) 흡입구와 배출구와 순환로가 모두 음식 찌꺼기로 꽉 막혀있습니다. 단식과 소식을 하면 깨끗해져 난방과 운동 없이도 몸 안의 불이 원활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일리가 있소. 지금껏 모두 잘 먹고 많이 먹고 좋은 것 먹으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는데 반대의 길에 지혜가 있는 것 같소.

20 대까지는 하루 세끼를 먹었더라도, 30 대부터는 두끼, 40 대부터는 한끼 이상 먹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 한끼를 먹고 살란 말인가!

왕께서 해보시고 좋지 않으면 관두시면 됩니다.

하긴 해보아서 문제될 것이 없군. 좋소. 해보겠소!

배고픔보다는 배고픔에 대한 공포, 먹고픔보다는 먹고픔에 대한 탐함이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소서. 자기 마음의 간사함을 관찰하면 간신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사오니 천하의 경영에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왕은 일일일식을 하더니 원인없이 아프던 부위들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배가 편해지고 변이 좋아졌다. 그는 기뻐하며 현자를 다시 불렀다.

과연 그대의 말대로 해보니 몸이 가벼워지는구료. 처음 며칠은 먹지 않고 있자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지만 그대의 말대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삼았소. 처음에는 하루 한끼에 하루 세끼의 양을 다 먹을 것처럼 탐했는데 그런 마음도 잦아들고 이제 한끼에 한끼 양을 맛있게 먹을뿐이오. 심지어 종일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은 아예 하루를 단식하기도 하오.

훌륭하십니다. 그간 몸에 좋은 것을 너무 채워넣어서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몸이 비어있는 자들은 신이니 기니 루니 하는 약을 먹으면 당장 기운이 채워지지만 왕과 같이 가득 찬 몸은 그런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이 고스란히 변으로 나오고, 나오지 못한 영양은 몸속에 남아 독이 됩니다. 뱃속이 편안하면 자연히 호흡도 깊어질 것입니다.

호흡도 몸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가?

호흡은 몸의 비밀을 열어주는 여러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슴으로 올라가있는 호흡을 배로 내리는 것, 가쁘고 빠른 숨을 느리고 긴

숨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소서.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호흡도 부드러워지지 않으니 반드시 신체 굴신을 병행해야 합니다. 몸과 분리된 호흡이 몸과 합치되면 육체의 힘이 생길 것이고, 마음과 분리된 호흡이 마음과 일치되면 정신력이 생길 것입니다.

적절한 신체 굴신은 어떤 운동을 말하는 것이요?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강한 몸은 더 강해지고 약한 몸은 더 약해집니다. 부하를 감당할 신체의 회복력과 탄력이 없으면 운동은 마모와 노쇠를 촉진할 뿐입니다. 신체 관절을 바로잡고 근육 인대를 풀어주는 무술로 시작하소서. 나아가 내공을 익히면 뼈와 살이 강철처럼 변할 것입니다. 군신과 백성이 문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무인의 기상을 드높이소서.

이제 왕은 무술과 호흡을 함께 연습하였다. 날이 갈수록 몸이 강해지고 정신이 선명해졌다. 아침마다 힘이 넘치니 만족감과 자신감이 차올랐다. 정사에 정열적으로 매진하며 일상이 강렬한 행복으로 다가왔다. 왕은 현자와 대화 나누기를 즐겼다.

무엇을 먹는 것이 몸에 좋겠는가? 혹자는 곡식과 풀만 먹어야 한다 하고, 혹은 고기와 기름을 먹으라 하고, 더러 특수한 음식이나 체질을 거론하며 이래저래 복잡한 설들이 많던데 어찌 생각하시요?

자연에서 나온 깨끗한 음식이면 무엇을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북쪽 빙하에 사는 자들은 날고기와 썩은 생선만 먹고 건강하며, 초목이 무성한 남방의 사람들 중에는 채식만 하며 불로장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풀만 먹어도 병약한 이들이 수두룩하고, 고기를 맘껏 먹으면서 병든 자들도 많으니 섭생의 내용보다 섭생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채움과 비움의 균형을 잃으면 약을 먹어도 독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세상에는 무엇을 먹으라는 이론들만 있고, 그대와 같이 비우라는 가르침은 드문가?

식품과 약을 팔면 상인들이 돈을 벌지만, 굶고 비우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상인의 시대가 아니옵니까.

하하 과연 그렇구요. 얼마나 비우고 얼마나 채울지 어떻게 아오?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안 먹으면 됩니다. 모든 야생의 짐승은 그같은 본성을 따르니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배고픔에 대하여 욕심과 습관이 붙어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찾고, 배가 부른데 계속 먹습니다. 또한 동물은 예민한 감각이 살아있어 자기 몸에 나쁜 음식은 스스로 피하지만 인간은 달고 짜고 기름지고 혀를 마취시키는 맛을 탐하여 더러운 음식을 피할줄 모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은 원래 타고난 건강과 활력을 회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강하고 힘차게 움직일 것입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비우는 단식은 어떻소?

영욕을 함께 단련하는 것으로 단식만한 것이 없습니다. 왕과 같이 만백성을 돌보는 분은 수시로 단식하며 극기와 정화를 연습하소서. 노화를 역행하고 심신을 치유하며, 또한 굶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움에 충실할수록 다시 채우는 것을 정성껏 해야할 것 같소.

맞습니다. 맑고 강한 기운을 가진 음식이 아니면 입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돈만 되면 오염된 온갖 화려한 식품을 만들어 민중을 먹이니 남녀노소 모두 아프고 어린이가 노인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들을 금하고 백성을 계도하소서.

백성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소?

슬프게도 근자에 인간의 오물이 천지를 병들게 하여 땅에서 자라는 곡물과 채소와 이를 먹는 동물이 모두 오염되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탁해졌고, 온땅의 물이 더러워져서 마실수록 병을 가져옵니다. 부디 현군께서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천지를 치유해 주시웁고, 천지를 치유하기 위하여 사람을 치유하여 주소서.

내 몸부터 치유해야 남을 치유하고, 천하를 치유해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좋소. 좋아! 현자께서 가르친대로 세상과 나를 경영하리다.

전생과 내생을 보는 능력

집과(執過)와 착미(着未)는 친구였다. 집과는 자기 전생을, 착미는 내생을 보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함께 수행했다. 3년을 보냈다.

드디어 집과에게 전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내가 이전 생에 저렇게 살았구나!

착미(着未)에게도 내생이 보였다. 아 내가 다음 생에 저렇게 사는구나!

둘은 뿔뿔이 기뻐하며 각자의 전생과 내생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차츰 짜릿한 흥미가 줄어들고 재미가 없어졌다. 결국 둘은 그 전 전생과 그 후 내생을 보기 위해 다시 수행을 하기로 했다.

때마침 현자가 산을 찾아왔다. 두 젊은이는 여기서 뭐하시오?

집과와 착미는 자기들의 목표와 성취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곰곰이 들은 현자問 집과여 당신이 죽어 내생에서 또다시 열심히 수행해서 전생을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재미 있겠습니까?

집과가 생각해보니 지금의 삶은 전생을 보느라 시간을 다 써버린, 별 흥미로움 없는 삶이었다. 그걸 보는 것은 아무 재미가 없었다.

현자問 착미여 당신이 전생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내생을 보았다면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착미가 생각해보니 지금의 삶은 내생을 보느라 열정을 다 써버려 그다지 보람이 없었다. 그걸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어제를 보고 싶어도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고 싶어도 오늘을 보시오. 죽어버린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있는 시간에 충실하십시오!

집과와 착미는 그날로 하산했다.

아버지의 편지

두 남자가 있었다. 둘 다 어려서부터 무술가가 되고 싶었다. 드디어 수련에 매진하기 위해 둘은 산으로 떠났다.

첫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무술가가 되는 순간 너와 나는 끝이다. 정신 차리고 사회에서 돈 벌고 출세할 길을 찾아라. 한번 빼끗하면 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된다. 장가 가고 애기 낳고 집을 사라.

둘째 아버지도 편지를 썼다. 무술가로 대성하거라. 하지만 대성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언제든지 돌아와라. 사회는 정해진 틀을 제공하지만 한 번쯤 깨부수는 것도 통쾌한 맛이다.

둘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련하여 무술가로 대성하였다. 무술이라는 열쇠로 인체의 비밀을 풀어가며 사람들에게 단련과 치유의 문을 열어주었다. 병들고 아픈 자들은 심신이 강해지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약에 의지해 살아가던 이들은 몸의 자연치유력을 회복했다. 수행에 깊이 들어간 이들은 평화를 얻고 사랑을 전파하였다.

다만 하나는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하나는 아버지와 정이 깊어졌다.

어머니의 편지

두 여자가 있었다. 둘다 어려서부터 농부가 되고 싶었다. 드디어 흙과 물을 살리고 빈곤을 퇴치하는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시골로 떠났다.

첫째 어머니가 딸에게 편지를 썼다. 농부가 되는 순간 너와 나는 끝이다. 정신 차리고 사회에서 돈 벌고 출세할 길을 찾아라. 한번 빼끗하면 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된다. 시집 가고 애기 낳고 집을 사라.

둘째 어머니도 편지를 썼다. 농부로 대성하거라. 하지만 대성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언제든지 돌아와라. 사회는 정해진 틀을 제공하지만 한 번쯤 깨부수는 것도 통쾌한 맛이다.

둘은 성실하고 야무지게 농사를 지어 크게 성공했다. 큰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흙과 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난을 퇴치하는 농사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무수한 민중이 그 농사를 배워 식량을 확보하고 건강을 회복했다. 여러 나라의 사막을 녹화하고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었다. 오염된 흙과 물이 정화되고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다만 하나는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하나는 어머니와 사랑이 깊어졌다.

고마운 중재자

사례 1. 갑과 을이 내전을 했다. 만명이 죽은 뒤 갑이 승리하여 나라를 통일했다. 을을 숙청하고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여 정세를 안정시켰다. 백성들이 태평의 열매를 누렸다.

사례 2. 갑과 을이 내전을 했다. 백명이 죽자 강력한 외세 병이 나섰다. 살상은 야만 싸움은 나쁜 것 대화로 해결하자 내가 중재해줄게. 힘센 병이 시키니 갑과 을은 따라야 했다.

병이 제안했다. 일단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이니 선거를 도입하자. 투표 경험 없던 민중은 우왕좌왕했다. 돈을 풀어서 표를 사는 일이 횡행했다.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자와 지지세력은 여기저기서 유혈 충돌했다. 국회는 전장터를 방불케 했다.

병은 내각에 갑과 을 사람들을 골고루 섞어서 공평하게 앉혔다. 대통령은 갑, 총리는 을, 내무장관은 갑, 외무장관은 을 이런 식이었다. 원수가 같은 내각에 들어오니 싸우느라 바빠 아무 일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가 굴러가지 않았다.

고위직들은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했다. 부유한 병은 마음껏 빌려주고 공짜로 주기도 했다. 병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갑을 지도자들은 공히 석유나 금광, 벌목이나 개발 등 사업의 권리를 경쟁적으로 병에게 팔아넘기고 한몫 챙기기 바빴다.

나라는 기약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내전은 그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자 죽은 자가 백만명이었다. 갑을은 병의 빚쟁이가 되었고, 국민들은 노예가 되었다. 병은 뒤로는 슬슬 무기도 팔았다. 나는 무기를 팔았을 뿐이지 싸우라고 한 적은 없어!

인도주의적 개입, 평화 유지, 민주주의 이식, 불가능한 화해의 성립, 인권 존중, 천연자원 개발, 경제개발 지원, 무기 공급까지! 국정 운영의 공이 지대한 병은 어찌 하늘이 보낸 천사가 아니라 할 수 있으랴.

용과 뱀

뱀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었다. 세상은 불의한 왕국들로 가득한 가운데 자기의 왕국은 정의롭기로 소문난 그런 왕국이기를 원했다. 왕국을 이루자면 큰 인물이 필요했다. 유능하고 성실한 용을 채용하였다. 용이 들어온 뒤 일사천리로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뱀은 마음 한구석에 질투가 움텄다. 나보다 일을 잘 하네.

용은 진심으로 뱀에게 충성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별다른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뱀이 바라는 정의로운 왕국 수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바쳤다.

뱀은 심사가 꼬였다. 저렇게 나한테 충성하는 척하지만 내 밑에 있을 녀석이 아니지 아무렴.

일이 성공가도를 달리며 뱀은 대운을 맞이하였다. 왕국이 커지고 재물과 명예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뱀은 욕심과 인색이 생겼다. 어차피 날 배신할 녀석과 나눠먹을 수는 없지.

결국 용에게 지지분한 누명을 씌워 오물의 연못 깊은 바닥에 감금했다. 용을 믿고 좋아하던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퍼뜨리니 그들도 용을 경멸했다.

뱀의 새끼가 물었다. 아버지, 용 아저씨가 없으면 누가 일을 하죠?

용이 하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유능하다고 소문을 내자고.

아버지, 용 아저씨가 배신할 분 같진 않았는데...

당연히 배신할 것이었어! 옛날부터 용은 배신하려 했다고 소문을 내자고.

아버지, 용 아저씨 공로가 너무 큰데...

우리는 용이 키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전부 우리가 이룩한 성과라고 소문 내자고.

뱀은 새끼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그런 약한 소리 그만 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정의로운 왕국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한 행동들은 불의한 왕국들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 불의를 하는 것이니까 괜찮아!

네 아버지!

한편 오물의 연못 깊은 곳에 봉인당한 용은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분노가 불기둥처럼 치솟았다. 벗어나려 할수록 봉인은 더 강해져 더 깊이 오물로 빠져들었다. 상처는 더 깊어지고 아파왔다. 오르고자 할수록 내려갔다. 모두 포기하고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자 거기는 글이 쓰여 있었다.

정의를 승리하리라 기대하지마라
진실이 알려지리라 바라지마라
선의를 인정되리라 믿지마라

깨달음을 얻은 용은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다. 분노와 파괴를 거두어 들이고 건설과 순수를 택하였다. 상처가 아물더니 더 강한 살이 돋았다. 지혜가 뭉치자 오물이 맑아지더니 수정의 연못으로 변했다. 곳곳에서 맑고 향기로운 꽃과 물풀이 피어나고 보화가 휘황찬란하였다. 용은 단숨에 솟구쳐 올라가 연못의 군주가 되었다.

이제 용은 자비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못은 바다로 변하더니 무서운 기세로 파도가 퍼져나갔다. 선량한 기운의 파도가 몰아치자 불의한 왕국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곳곳에서 양심들이 나타나 힘을 합치자 파도는 더 커지고 거세졌다.

뱀이 이룩한 왕국 역시 불의한 왕국들과 함께 양심의 쓰나미에 휩쓸려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뱀과 뱀새끼는 수정의 바다에 난파선을 타고 뚱뚱
떠다녔다. 한참 표류하다보니 수면에 무언가 반짝이고 있어 다가갔다. 물속
깊은 곳에서 글씨가 빛나고 있었다.

정의를 승리하리라
진실이 알려지리라
선의를 인정되리라

성인의 부활

오래전 성인은 인류에게 사랑과 지혜의 가르침을 베풀었다. 무력보다 비폭력,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함을 일깨워 주었다. 투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해방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감복하여 추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권력자들도 추종자가 늘어나자 은근히 두려워졌다. 결국 이들은 성인을 잡아 처형해버렸다. 성인은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모여 종교가 태어났다.

집단을 이루자 조직이 필요했다. 위계와 분업이 생겨나고 무엇보다 자금이 절실했다. 장사와 허풍, 사기와 협박을 섞어 돈을 모았다. 돈이 모일수록 돈을 모으기 수월했다.

높은 직위를 가진 이들은 차츰 거드름 피우며 신도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공금을 사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종교가 잘 되는 장사라는 소문이 나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사랑과 지혜의 가르침은 밖에 내걸은 껍질에 불과했다.

세력이 강해지자 세속의 정부를 뇌물로 구워삶았다. 법과 제도를 뒤틀어 종교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자기들은 납세의 의무에서 비켜갔다. 고위직과 부자들 속으로 침투해 신도로 만들었다. 세속의 유력자들도 나름대로 종교에 귀속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타산을 따져 그리 하였다.

그렇게 이 종교는 지배자의 종교가 되었다.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도 출세도 심지어 교우도 쉽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가 노린 바였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 세력으로 몰아부치고 이들에 대한 악마화, 테러, 공격을 목인 심지어 조장했다. 믿으면 좋아서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것이 불편하거나 무서워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종교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단합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일을 정의롭다고 칭하였다.

문제는 성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견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자 해답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점점 많아졌고, 그만큼 분파가 갈라졌다. 분파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면서 속으로 안중에는 자기 분파의 장사밖에 없었다.

많은 순수한 이들은 종교의 실상에 실망하여 떠났다. 신도들은 기회주의자와 모리배로 들끓었다.

그렇게 이천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늘나라에 가있던 성인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성인은 자기 가르침이 혼탁해질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이제 거짓 세력을 부수고 가르침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가르침의 문을 다시 열리라!

성인이 다시 나타나자 온세상은 뒤집혔다. 이천년 동안 부르짖고 갈망하던 그 성인이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전세계에서 순례자의 행렬이 뒤이었다. 그들은 성인의 발이라도 만져보려고, 멀리서 바라보기라도 하려고 간절했다.

성인은 화려한 신전에도, 드높은 보좌에도 앉지 아니하고 늘 거리에서 맨발로 사람들을 맞이하였다. 성인은 항상 병든 자, 굶주린 자,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거했다. 누더기를 입고 거리에서 잤다. 밥을 구걸해 먹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서로 나눌 것을 가르쳤다. 신도들은 그를 연모하고 그를 따라하여 추운 겨울날도 길거리에서 그를 에워싸고 함께 잠을 잤다. 온기를 나누니 마음이 열리고, 노숙자와 시민은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성인은 가난에서 나오는 베풀과 멸시에서 싹트는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부유함 속에서 베풀지 않고 명예 속에서 스스로밖에 사랑하지 않던 이들은 가시방석이었다. 이천년 전 성인을 처음 겪었던 사람들을 휩쓸었던 영혼 깊은 감동이 다시 사람들을 울리고 있었다. 장사와 정치로 얼룩진 가르침의 원래의 원초적 순수를 접한 사람들은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으로 변해갔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창시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앞다투어 와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마음속은 불편했다. 성인은 지도자들이 만들어놓은 으리으리한 신전과 제단과 궁궐을 모조리 부수라고 일갈하는가 하면, 사치와 명예와 권력에 취한 이들에게 재산을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당장 무소유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쳤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순수한 이들은 성인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따랐다. 이들은 무소유로 전락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졌던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

대중 사회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편리하고 선한 위장을 하기에 좋아서 종교를 믿던 신도들도 불편했다. 그들은 자기 편리함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세를 하기 좋아했을 뿐이었다. 이들은 단 한번도 물질보다 영혼을 택한 적이 없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성인을 중심으로 다시금 순수한 원초의 아름다운 대중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와 세력가 신도들에게 이는 골치꺼리였다. 문제는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점이었다. 교리를 묘하게 해석해서 자기들 행태를 합리화하고 싶었지만 원조가 나타나버렸으니 교리 논쟁을 할 여지가 없었다. 성인의 말 한마디는 살아있는 교리였다. 게다가 성인은 워낙 말을 쉽고 정확하게 하여서 교육받지 못한 이들도 명확하게 이해하였다.

신도들은 썰물처럼 기성 지도자들을 떠나고 있었다. 정녕! 성인은 자기로 인해 성립된 종교지만 그 종교조차 사라져도 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인간의 해방이 중요한 것이며 종교는 천번 만번 그 수단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종교로 밥그릇을 삼던 자들은 점점 분노했다.

결국 최고위 지도자들은 손을 쓰기로 했다. 국가 기관과 결탁하여 성인의 죄를 위조해내었다. 재판과 처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중이 반발할 새도 없이 어느새 성인은 언덕 위에서 숨이 끊어졌다.

지도자들은 대대적 선전에 나섰다. 그는 성인이 아니라 사기꾼이었다! 그는 성인을 가장한 거지였다!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왜곡한 죄가 무겁다!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에게 왔던 성인은 두 번을 같은 죽음을 당했다.

사랑과 용서

애수(哀愁)는 아름답지만 불행한 여인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어머니에게 학대받았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학교도 누구도 애수를 지켜주지 않았다. 상처를 가진 그녀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

집을 나와 굶던 그녀는 결국 어둠의 세계로 흘러들었다. 한 남자 한 남자 상대할 때마다 마음 속은 점점 더 뒤엉켜갔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기에 대한 미움이 들끓었다.

어느날 맞이한 남자는 애수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정신을 잃도록 맞던 애수는 아버지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광기 속에 칼을 찔렀다.

살인자가 된 애수는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언도받았다. 감옥에 있는 그녀에게 성자와의 면담이 허용되었다. 그녀는 성자를 만나려 하지 않았지만 성자가 요청하여 자꾸만 그녀를 만나러 왔다. 결국 그녀는 성자의 따뜻한 고요 속에 입을 열었다.

성자님 저는 왜 학대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네?

학대하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사실에 불과할뿐 이유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묘한 어법에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뒤로 애수는 며칠에 한번씩 허용되는 성자와의 면담이 큰 위안이었다.

성자님 세상은 왜 그렇게 저한테 가혹했을까요?

그건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군요. 애수는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성자가 덧붙였다. 세상을 용서하세요.

성자님 덕분에 그렇게 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용서할 대상도 용서하지 않을 대상도 없습니다.

사형일이 다가오자 애수는 자기가 죽인 남자가 자꾸 떠올랐다.

성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남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제 사과를 전해주시시오. 죄송하다고... 애수는 말끝이 흔들리며 조용한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가서 직접 용서를 빌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 부탁할 사람은 성자님밖에 없습니다.

성자는 말이 없었다.

성자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대는 이미 그 가족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애수는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을 죽인 자가 수감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자원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수는 울음이 벅차올랐다.

세상은 애수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애수가 괜찮다면 저는 애수를 양녀로 삼고 싶습니다.

저를 입양하신다고요?

제 후원이 있으면 감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살아갑시다.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업힘과 나눔

생태계 붕괴와 오염으로 인류의 멸망이 가시화되자 지구인들은 극루소(克累燒)를 우주로 파견하였다. 그는 광활한 우주를 떠돌며 인류가 새로운 이사 갈 수 있는 행성을 찾아나섰다.

인류의 존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극루소는 우주 미아처럼 돌아다녔다. 바다가 석유인 별, 산맥이 다이아몬드인 별, 금가루가 비로 내리는 별 등 기상천외한 곳을 다 가보았지만 인류가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33년 방황 끝에 흙을 가진 별에 도착했다. 풀과 나무, 벌레와 짐승이 살고 있었다.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온 손님을 포근하게 맞이하는 것 같았다. 극루소는 환희에 부풀었다.

농경이 가능한지 실험에 들어갔다. 흙별에 오자마자 따먹었던 맛있는 과일의 씨앗을 심었다. 과연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했다. 농사가 되는구나! 환호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잎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렸다. 자세히 관찰하니 자그마한 벌레가 기어다니며 싹을 갉아먹는 것이 아닌가?

극루소는 우주선에 가지고 왔던 독극물을 꺼내어 부지런히 밭에 살포했다. 작은 벌레들은 당장 나자빠졌다. 와! 여기서도 농약이 되는구나!

그런데 작은 벌레들이 죽자 더 큰 벌레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피해를 입혔다. 극루소는 긴장하여 더 열심히 농약을 뿌렸다. 큰 벌레들은 쉽게 죽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때리면 자빠졌다.

그런데 큰 벌레들을 좀 잡았나 싶었더니 이제 짐승들이 나타나서 식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극루소는 우주선에서 총을 꺼내왔다. 탕! 탕! 인간을 모르던 행성에 처음으로 총성이 울리고 여기저기 외계 짐승들이 쓰러졌다.

작은 벌레와 큰 벌레와 짐승들까지 제거했지만 식물은 이상하게 비실거렸다. 극루소는 속이 상했다. 우주선에서 케미칼을 꺼내와서 비료를 뿌렸다. 뽕뽕은 것처럼 식물은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러나 식물이 커지자마자 벌레와 짐승들이 더 심하게 덤볐다.

극루소는 상심했다. 평생을 해맨 끝에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를 찾은줄 알았는데 농사가 안되면 도루묵이었다. 슬픔과 좌절로 그는 끼이끼이 울다가 잠들었다.

꿈에 흙의 신이 나타났다. 지구에서 온 손님이며 왜 우시는가?

극루소는 부은 눈을 올려보며 답했다. 농사가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려고 벌레와 짐승을 잡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농약과 비료도 효과가 없습니다.

흙신쫂 우리 별은 식물과 동물이 반드시 함께 살아간다네. 식물은 동물을 먹이고 동물은 식물을 먹이지.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네.

아니 벌레가 작물을 다 먹어치우면 사람은 무엇을 먹습니까?

흙신이 반문하길 사람이 작물을 다 먹어치우면 벌레는 무엇을 먹는가?

네?

나의 별은 동물과 식물이 모두 얽혀 서로 의지하며 양보하고 또 주고받고 나누면서 살게 되어 있네. 얽힘을 벗어나고 나눔을 피한다면 결국 전체가 죽는 수밖에 없어. 인간이 혼자 다 먹으려 든다면 결국 인간도 먹을 것이 없게 되네.

그 말이 마치기 무섭게 극루소는 펄쩍 어리석음이 잠겼다. 그는 자기가 뿌린 농약을 최대한 청소하고, 자기가 죽인 벌레와 짐승들을 정성껏 제사 지내주고 우주선에 시동을 걸었다. 지구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숙주가 아니라 얽힘과 나눔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지구를 살리지 못하면 새로운 지구를 찾을 자격이 없다.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새로운 지구를 찾을 필요가 없다!

33 년만에 극루소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지구인들은 케미칼 뿌연 하늘을 올려보며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다.

탐욕마왕

외계에서 온 탐욕마왕은 지구를 정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디에도 탐욕을 집어넣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동물 가운데 인간이 눈에 띈었다. 태고 적 사람들은 소박하게 살아왔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가졌다. 크게 부족한 것도 크게 넘치는 것도 없었다. 마왕은 인간을 유혹해보았다.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싶지 않니?

아니오. 배불러요.

더 아름다운 여자를 더 많이 갖고 싶지 않니?

아니오. 한번 했으면 됐어요.

더 멋진 남자를 더 많이 갖고 싶지 않니?

아니오. 한명도 피곤해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지 않니?

아니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이었다. 마왕은 지쳐 고향별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충성스러운 신하 셋이 달려왔다. 두려움과 질투와 체면이었다.

두려움이 사람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음식이 충분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겨울에도 괜찮니?

질투가 쿡쿡 쑤셨다. 다른 남자들은 여자를 셋씩 데리고 사는데 넌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니?

체면이 조곤조곤 물었다.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비웃는데 괜찮니?

두려움과 걱정, 비교심리와 질투, 체면과 창피가 사람 마음 속에서 살며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불안과 불편이 싹텄다. 드디어 탐욕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무서운 속도로 오염되어 갔고, 마왕과 신하들은 새로 확보한 신천지에서 축배를 들었다.

명의

낙(樂)과 울(鬱)은 의사를 찾아 건강 진단을 했다. 의사의 실수로 둘의 진단 결과가 뒤바뀌었다. 원래는 낙에게 병이 있었는데 의사는 울에게 그 병이 있다고 착각했다. 원래 건강하던 울은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다. 죄송합니다. 이 병은 현대 기술로 치유가 안됩니다. 앞으로 정확히 1년 남으셨습니다.

울은 크게 낙심했다. 식욕이 사라지고 의욕을 잃었다. 슬픔과 억울함, 분노와 절망이 들끓었다. 점점 몸이 쇠약해졌다. 받아들이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잊으려 했으나 잊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열심히 먹자 없던 증세들이 나타났다. 의사가 예고한 시점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낙은 의사로부터 건강하다는 얘길 듣고 마음이 유쾌해졌다. 몸에 병이 있는줄도 모르고 신나게 살았다.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열심히 일했다. 친구들을 만나고 연인과 사랑했다. 점점 몸이 강해지더니 자기도 모르는 새 병이 나왔다.

1년이 지나 의사가 예고한 정확한 시점이 되자 극도로 피폐해진 울은 쓰러져 죽었다.

그뒤로 그 의사는 명의라는 소문이 나서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인간을 부르는 손짓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진동이었다.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도 없고, 동물과 식물도 모두 하나의 진동으로 녹아들었다. 그곳은 태초의 무, 형태의 뿌리, 이름보다 앞섬, 전체 마음, 무한 의식, 신성이라고도 불렸다. 우주의 만물은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 진동하며 희열에 잠겨 있었다.

빅뱅 이후 분화가 지속됐다. 무에서 하나가 튀어나와 둘이 되고 넷이 되더니 여덟 예순넷으로 계속 갈라졌다. 생명체는 끝없이 갈라져 나가고 독특하게 적응하고 진화했다. 특히 동물이 가진 의식은 독자적으로 비상하게 발전해나갔다. 의식에 여러 층이 생기면서 뇌에도 여러 층이 생겼다. 표면 의식으로 갈수록 근원 의식과의 연결성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동물들도 잠이 들면 표층 의식이 조용해지면서 우주 의식과 다시 연결되었다. 겨울잠에 들어가면 특히 짐승들은 적막한 우주의 환희에 젖어들었다.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치열한 생사의 현장에도 희열이 가시는 법이 없었다. 의식이 생멸하고 물질이 순환하고 생태계는 천이했지만 본질상에는 시간도 흐른바 없고 생사는 일어난 적이 없었다.

가장 발달한 두뇌를 가진 동물이 나타났다. 인간의 표층 의식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기능성을 자랑했다. 언어와 수학, 예술과 상징, 추론과 과학이 성립하였다. 실로 신피질은 분화가 정점을 찍었다고 할만한 의식의 금자탑이었다.

문제는 워낙 표면 의식이 발달하다 보니 인간이 거기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연결성과 얽힘, 근원의 통합과 괴리되고 고립된 자아, 파편적 의식의 실체를 믿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잠을 자도 근원과 연결되기 힘들었다. 불면증이 인구 다수를 휩쓸었다. 겨울잠 유전자는 오래전 비활성화되었다. 엄격한 수행을 통해 삼매에 들지 않는 이상 겨울잠은 불가능했다. 재주를 가진 소수만이 명상 훈련을 통해 심층 의식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인류 대부분은 현빈의 문이 닫히고 망상 같고 껌질 같고 지옥 같은 생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은 태초 무한 의식의 기억을 가졌기에 깊은 실존에는 절망감과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상황에 개별 의식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심리는 곧 탐욕과 폭력성, 교만과 자기애로 나타났다. 영악한 기획에 유능한 표면 의식을 사용하여 지구의 동식물들 심지어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였다. 유한한 자아의 무한한 영속을 획책하려는 발버둥이었다. 그 유한성은 자신이 설정한 것임을 모른채.

나머지 모든 동식물은 여전히 우주적 진동에 원만하게 들어가 있었다. 이들은 인간이 불쌍했다. 인간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허튼 짓꺼리로 벌어진 전쟁과 생태계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지구의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무생물을 아우르는 총지구생물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언어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며 논의가 아닌 논의로 합의에 이르렀다. 표면 의식에 감금돼버린 우리 형제 인간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힘껏 사람에게 무한으로의 초대장을 보내자.

그래서 사실 자연계의 모든 흔들림은 우리를 부르는 손짓이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풀잎도, 보글보글 익어가는 술소리도, 삐죽 지저귀는 산새도, 어슬렁 지나가는 곰도 모두 사람에게 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열렬히 부르고 있다. 잡념이 지배하는 우리 귀는 이들의 부름에 닫혀있지만 간혹 맑은 마음에게는 그 소리가 얼핏이 들린다고 한다.

생각의 별

생각의 별에는 999 의 999 제곱의 999 제곱 가지 생각들이 살고 있었다. 그 생각들은 또 가지치기를 해서 둘이 넷이 되고 여덟 열여섯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곳의 왕이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터져버리겠다. 다른 땅을 찾아야겠다.

왕은 다른 별들을 탐사하다가 지구 별에 도착했다. 푸르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울긋불긋 꽃동산에 사람이 있었다. 큰 나무 아래 고요히 정좌했는데 사람 내면에는 청정이 살고 있었다.

왕이 무릎을 쳤다. 저렇게 텅빈 곳이 있다니!

왕이 다가가 청정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게 부탁이 있소. 그대 안의 무한한 텅빈 공간을 우리에게 빌려주겠소?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생각의 별의 왕이고, 내 백성들은 새로 살 곳을 찾고 있소.

그러십시오. 청정은 흔쾌히 수락했다.

당장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항하사의 항하사 제곱 생각들이 우루루 몰려갔다. 과연 사람의 머리속은 아무리 들어가도 비좁지 않았다. 이런 곳이 있다니! 생각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거품처럼 뭉개뭉개 불어났다.

그렇게 사람 속에 생각 나라가 생겨났다. 한시도 쉬지 않고 부글부글 끓임없이 뒤죽박죽 생각을 달고 살다보니 사람은 몹시 괴로웠다. 청정은 다시 왕을 불렀다.

이보시오. 생각이 이렇게 많고 괴로울줄은 몰랐소. 다시 나가주시오.

아니 이 사람이! 한번 들어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나가라고 하는게 어딴소!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긴 어딜 가겠소!

아니오. 나가주시오. 난 견딜 수가 없소.

그건 안될 말이오!

왕은 부하를 풀어 청정을 납치해 마음의 창고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 집어넣고는 단단히 봉인해버렸다. 그뒤로 사람은 청정을 잊고 살아갔으나 아주 간혹 아주 가끔 고요의 새벽이 밀려올 때 청정의 빛이 새어나오기도 한다고 전한다.

꿈을 깨다

몽각(夢覺)은 꿈을 꾸었다. 사방은 암흑인데 비좁은 문을 통해 빛이 보였다. 저 문을 나가야 한다. 머리를 내밀었으나 딱 끼어 나갈 수 없었다. 혼신의 힘을 쓰자 온몸이 쑥 빠져나왔다. 억! 허공으로 떨어지는 순간 꿈을 깼다.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잠들어 있었다. 손을 뻗어 그녀의 몸을 만졌다. 여인은 비몽사몽 간에 흥분하여 들은 뒤엇겼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살에 얼굴을 묻었다. 절정이 왔다. 헉! 신음의 순간 꿈을 깼다.

몽각은 날고 있었다. 손과 발, 몸통 어디도 어디에 닿지 않은 느낌. 자유. 바람의 자유였다. 아래로 계곡과 설산, 평원과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다. 구름은 솜털 같은 부드러움이 황홀했다. 아! 감탄하는 순간 꿈을 깼다.

이번에 몽각은 천하의 제왕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명령에 제국이 움직이고 날던 새도 떨어졌다. 산천초목이 복종하니 지상의 절대자였다. 세상의 금은보화를 모두 가졌고, 누릴 수 없는 향락이 없었다. 세상에 더 이를 게 없구나! 꺾꺾 웃는 순간 꿈을 깼다.

목덜미가 너무나 아팠다. 목직한 멍에가 걸려 있었다. 걸음마다 발굽은 진흙에 빠지고 온몸은 천근만근이었다. 발갈고 수레를 끌고 쉴새없이 일하며 몇해가 금방 흘렀다. 그러다 너무 늙어 일소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주인이 어느날 칼을 들고 오더니 주저없이 목덜미를 찔렀다. 음워어! 하는 순간 꿈을 깼다.

몽각은 쫓기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이 복잡했다. 음산한 살기가 내려오는데 멀리서 검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가야 해! 마음은 급한데 발이 묶였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였다. 검은 형상들은 신속하게 접근해왔다. 몽각이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었다. 죽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달빛이 칼에 반사됐다. 번쩍! 하는 순간 꿈을 깼다.

이번에 몽각은 투명해졌다. 엄마와 아빠, 친구와 가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 손은 허공 같아 사람들을 만질 수 없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절규해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공포와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는 인적 없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흐느꼈다.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꿈을 깨는 자여, 왜 우십니까?

눈을 들어보니 성자가 서있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꿈을 깨면 다시 꿈이고, 다시 깨면 또 꿈입니다.

꿈을 깨지 않고 하나의 꿈이 계속되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꿈도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꿈을 벗어나 현실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세상들은 현실이 아닌 꿈이었나요?

네. 그럼요.

당신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꿈이 아닌 현실인가요?

네. 그럼요... 답하는 말끝이 흐려졌다.

몽각은 다리를 꼬고 바로 앉아 눈을 감았다. 산란과 번잡이 가라앉으며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꿈이 아님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꿈에서 깬다.

자자와 타타

자자(刺自)는 슬픈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미워했고, 사람들도 자신을 미워한다고 믿었다. 자기는 항상 틀렸고 항상 모르고 항상 잘못했다.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바람이 부는 어느날 길을 걷던 자자는 유달리 위축감이 느껴졌다. 스스로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세상에 속할 곳이 없었다. 바람이 소리를 전해왔다.

너는 못났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더 세졌다.

너는 나빠.

슬픔이 복받치며 자자는 빠른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채.

니 잘못이야.

정신없이 평평 우는 자자를 세찬 바람이 떠밀었다. 그만 자자는 발을 헛딛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타타(打他)는 오만한 여자였다. 그녀는 자기가 잘났고, 세상에 잘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기는 항상 옳고 항상 알고 항상 정당했다.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마음이 허방했다.

바람이 부는 어느날 길을 걷던 타타는 유난히 교만이 차올랐다. 스스로가 너무 위대하여 세상에 속할 곳이 없었다. 바람이 소리를 전해왔다.

너는 잘났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더 세졌다.

너는 옳아.

자기만족이 차오르며 타타는 신나게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채.

니 덕이야.

정신없이 깔깔 웃는 타타를 세찬 바람이 떠밀었다. 그만 타타는 발을 헛딛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둘은 절벽 아래에서 만났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곧 빠져나갈 궁리를 하였다. 사망을 살피봤지만 나갈 길은 절벽을 올라가는 것뿐이었다. 자자와 타타는 올랐지만 가파르고 높은 절벽에서 번번히 떨어져 내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둘은 기진맥진하였다.

절벽을 오르시려고?

사람 음성에 두 여인은 깜짝 놀랐다. 백발의 성자가 서있었다. 이 절벽은 심벽(心壁)이라 부르는데 마음의 장애가 없어야 오를 수 있다오.

자자가 말했다. 저는 마음에 장애가 많아 못 오르겠지요?

타타가 말했다. 저는 마음에 장애가 없는데 왜 못 오르지요?

방금 그렇게 말한 그 마음! 그걸 단속하시오 이르고 성자는 사라졌다.

자자와 타타는 깊이 성찰하더니 그 장애를 찾았다. 사실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다. 자자는 자학을 부수고, 타타는 자만을 부수었다. 그러자 큰 바람이 다시 찾아와 두 여인을 태우고 절벽 위까지 올려다주었다.

당근 그냥 너 먹어라

농부가 야채를 팔고 있었다. 꼬마가 와서 당근을 집더니 아작아작 먹었다.
농부曰 애야 돈을 내고 먹어야지.

아이답問 왜 아저씨한테 돈을 내야 되죠?

아저씨가 일해서 키운 당근이기 때문이란다.

당근은 햇빛과 비를 받으며 흙이 키워낸 것 아닌가요?

그 말도 맞는데 아저씨가 힘들게 일해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아저씨는 해랑 비랑 흙한테는 돈을 내셨어요?

햇빛과 비는 공짜이고 흙은 이 아저씨 땅이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단다.

해와 비가 자기들을 공짜로 써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있나요?

없지 없어. 그건 그냥 사람이 그렇게 정하는 거란다.

아저씨 땅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아저씨가 돈을 내고 땅을 샀잖아. 그러면 그 땅은 내꺼가 되는 거야.

그건 누구에게 사는 거예요?

전 주인에게 사는 거지.

그 전 주인은 누구에게 사는 거예요?

그 전 전 주인에게 사는 거지.

그럼 계속 올라가면 누가 최초 주인이에요?

음. 이 땅에 처음 들어와 여긴 내 땅이오 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은 땅을 산 게 아니네! 자기 맘대로 정한 거잖아요.

원래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란다.

자연이 나를 지배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 있나요?

없지 없어. 그런건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란다.

아저씨는 당근에게 당근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나요?

없지 없어. 당근한테 동의 받을 필요는 없지. 그건 그냥 사람의 권리야.

저는 그런 인간의 행동이 좀 독재적인 것 같아요. 아저씨는 왜...

당근 그냥 너 먹어라.

자기애

세명의 친구가 봉사하러 떠났다. 이들은 밥을 굶는 마을을 찾아가 식량을 나눠주었다.

첫째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둘째 친구는 생각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란 생각을 단속하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셋째는 생각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란 생각을 단속하므로 나는 좋은 사람이란 생각을 단속하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음식을 나눠주면서도 셋의 마음은 자기애로 가득했다. 복잡성의 차이만 있을뿐. 정작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은 결여돼있었다.

밥을 얻어먹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참 고마운 일이군.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을 돕다니. 그런데 난 저 밥만 먹고나면 왜 이렇게 소화가 안되지?

어! 자네도 그런가?

두 사냥꾼

두 사냥꾼은 큰 숲을 절반씩 가지고 있었다.

탐잔(耽殘)은 죽이기를 즐겼다. 짐승이 총에 쓰러지면 환호했고, 낚시줄에 과다이는 물고기가 짜릿했다. 탐잔은 닥치는대로 많이 죽여서 남는 것은 모두 판매하였다. 그는 점점 부유해졌지만 숲에는 동물과 물고기가 점점 줄어들었다.

봉취(奉取)는 필요한만큼만 죽였다. 짐승이 총에 쓰러지면 명복을 기도했고,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그들의 희생을 감사했다. 봉취는 동물을 많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가난했지만 숲에는 들짐승과 날짐승이 풍족했다.

탐잔의 숲은 점점 사냥하기 힘들어졌다. 워낙 동물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탐잔은 봉취의 숲을 넘보게 되었다. 탐잔은 숲을 사들이고자 했으나 봉취는 팔지 않았다.

탐잔은 관료에게 뇌물을 먹였다. 답사를 나온 관료는 봉취가 야생 동물을 남획했다며 영구 사냥 금지명령을 내렸다. 생계를 잃은 봉취는 결국 탐잔에게 숲을 팔았고, 탐잔은 다시 원시림을 분탕하였다. 얼마 안 가 그 숲도 동물이 사라졌고 그는 다시 건너편 숲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음식 버리지마라

선생님이 가르쳤다. 음식을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드세요.

첫째 학생은 생각했다. 그렇지. 음식은 돈이니까.

둘째 학생은 생각했다. 그렇지. 세상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셋째 학생은 생각했다. 그렇지. 식량을 생산하느라 고생한 농부들을 생각해서.

넷째 학생은 생각했다. 그렇지. 식량은 곧 생명이니까.

첫째 학생은 밥알을 안 버린 돈을 열심히 모았다. 10년 지나 은행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10년간 음식 쓰레기 버리지 않고 모으신 돈이 만원입니다. 그는 충격받고 그 뒤로 음식을 마구 버렸다.

둘째는 굶고 있는 나라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당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식량을 줌 보내주세요. 그는 충격받고 그 뒤로 음식을 마구 버렸다.

셋째는 농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제발 음식을 많이 버리고 소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는 충격받고 그 뒤로 음식을 마구 버렸다.

넷째 학생은 생명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우릴 자꾸 잡아먹으니 괴롭습니다. 원래 진지한 그는 더 심각해졌다. 그는 먹는 양을 최소로 줄이고, 먹을 때마다 생명체들에게 감사했다. 죽을 때가 되자 그는 자기 몸을 동물과 식물과 흙으로 돌려주었다. 비로소 빛을 갠구나!

강을 건너는 자

대평원에 흐르는 큰 강이 있었다. 강변의 비석에 이렇게 쓰여있었다. 이 강을 건너는 자 세계를 지배하리라.

나는 강하다는 자가 건너기 시작했다. 강한 힘으로 세차게 나아갔다.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외쳤다. 저 사람 정말 힘이 대단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만심이 올라와 바로 가라앉았다.

다음 나는 노력한다라는 자가 헤엄치기 시작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전진했다. 강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족감이 생기더니 바로 가라앉았다.

나는 잘났다는 자가 뛰어 들었다.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며 수영해나갔다. 사람들이 감탄했다. 저 사람 정말 특별하게 뛰어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애가 생기더니 바로 가라앉았다.

그때 이름없는 도인이 나타나 휘적휘적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계곡에 모여 사람들은 놀라웠다. 저 사람 누구지? 힘이 대단해! 정말 열심히 하네! 뛰어난 사람 같아!

모든 말들이 스쳐지나가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드디어 도인은 강 건너편에 도달했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와 드디어 세계를 지배할 자가 나타났다!

도인은 순식간에 다시 강을 건너 돌아왔다. 사람들은 양떼처럼 몰려 환호했다. 영웅이 나타났다! 계곡에 머물며 정치를 하세요!

하지만 그는 왔던 것처럼 가버렸다.

마음의 성형수술

성형수술이 발달한 나라가 있었다. 얼굴은 물론 마음까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다. 미화(美花)와 미근(美根)이라는 두 친구는 아름다워지고 싶어 의사를 찾았다. 의사가 설명했다. 얼굴 아니면 마음 중 하나만 고칠 수 있습니다.

미화는 얼굴을 선택했다. 과연 절세의 미색으로 거듭났다.

미근은 마음을 선택했다. 겸손하고 평정한 마음을 얻었다.

둘이 마을로 돌아오자 미화의 인기가 솟구쳤다. 남자들은 젊은이와 어린이 심지어 어르신까지 미화를 좋아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미화의 자태를 바라보곤 했다. 미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츰 사람들은 오만한 미화를 싫어하게 되었고 미근의 온화한 인품에 끌렸다. 세월이 지나자 늘 마음이 편안하고 베풀줄 아는 미근은 얼굴조차 미화보다 더 이쁘게 변해갔다.

오만하고 조급하던 미화는 미운 얼굴로 변해갔다. 그럴수록 미화는 더 화가 나고 불만스러웠다. 이쁜건 나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미화는 다시 의사를 찾아갔다. 저도 마음을 이쁘게 고쳐주세요! 의사가 답했다. 안됩니다. 수술은 몸과 마음 중 딱 한가지지만 딱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미화는 너무 억울하여 영영 울었다. 그러자 의사가 미화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여보세요. 마음을 고치는 수술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망치에 얻어맞은 것 같았다. 미화는 그 길로 돌아와 베풀고 겸손하고 온화한 데 애썼다. 얼마 안 되어 다시 절세의 미인이란 소리를 들었다.

왕족발

왕은 나라의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자기 발 길이를 1 왕족발이라 명하고 자를 만들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나무를 깎아 표준이 되는 자를 만들어 궁궐에 두고, 복사본을 무수히 만들어 온나라에 보급했다.

왕족발 자가 나라 곳곳에 퍼졌지만 사람들은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 대충 자기 발길이를 왕족발이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기가 대강 나무를 깎아 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 이러다보니 다시 지방마다 고을마다 왕족발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다.

왕은 화가 났다. 지방마다 엉뚱한 자를 만든 자들을 잡아들였다. 잡혀온 자들은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어서 왕은 다소 마음이 누그러졌다.

집이 백성들의 혼란을 덜고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량형을 통일하였거늘 그대들은 어찌 자기 멋대로 왕족발 자를 만들어 썼는가. 그렇게 고을마다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서로 거래를 하겠는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아니 뭐 죽을 죄는 아니고... 여봐라, 왕족발 자를 가져와서 이자들의 자와 비교해보거라.

백성들이 가져온 자는 왕족발 자와 길이가 같은 것이 없었고, 게다가 서로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다. 아주 미세하더라도 다 차이가 났다.

왕이 혀를 끝끝 찼다. 이러니 도량형을 통일시켜야지. 이렇게 다 틀려서야 원. 여봐라, 저들에게 왕족발 자를 하나씩 나눠주어 돌려보내라.

백성들은 성은이 망극하다며 왕족발 자를 하나씩 받았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왕실에서 내준 왕족발 자들도 서로 맞대보니 아주아주 미세하게 길이의 차이가 났다

왕이 당황했다. 아니 그럴리가. 표준, 표준 자를 꺼내오너라.

변하지 않는다는 나무로 만든 자가 등장했다. 왕실에서 복사본들을 표준 자와 대보았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럴 수가!

왕은 표준 자를 가져와 자기 발에 대보았다. 그런데 그것조차 길이가 달랐다!

현자와 제자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제자曰 제 소견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왕실에서 만든 나무 자가 아주 미세하지만 오그라들거나 뒤틀렸고, 왕의 발이 아주 미세하지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 것 같습니다.

현자쫘 너는 아직도 길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엘리트와 야인

인구의 절반이 지구 총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은 구석기 시대였다. 인구의 십프로가 절반을 차지하더니, 세월이 흐르자 일프로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시스템이 조금 더 용을 쓰자 급기야 인구의 일프로는 생산량의 구십구프로를 소유하게 되었다. 불평등이 양적 극한에 이르자 질적 고착화에 들어갔다.

엘리트들은 부의 독점을 지키기 위해 피지배 계급의 불만이나 소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옛날처럼 반발이나 부작용이 심한 직접적 강제적 방식은 지양했다. 우선 면서(面書)라는 놀이를 퍼뜨렸다. 면서는 소소하게 일상 얘기를 나누며 노는 공간이었다. 자연스럽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 상대 글에 맞장구 칠 수 있게 만들어두자, 사람들은 그놈의 맞장구 받고 싶어서 더 적극적이고 적나라하게 자기 정보를 공개했다.

언제 어디를 방문했고 어떻게 이동했으며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기록되었다. 무슨 제품을 구입했는지, 취미와 성향이 무엇인지, 어떤 사회단체와 동호회 활동을 하는지 다 파악되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써서 수억 장의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얼굴을 파악했다. 동영상에 나오거나 검색에 입력하는 음성을 잡아서 개 개인의 목소리까지 인식했다. 슈퍼컴퓨터가 상상초월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조리 기억하였다.

얼마 전에는 모든 개인에 대한 신체정보 발신기 장착을 완료하였다. 이 기기는 사람들 손목에 간단히 삽입되는 것으로 개인의 혈당, 혈압, 심박, 체지방, 체온, 호르몬, 운동량, 질병 상태 등을 모두 기록하고 중앙으로 송신했다.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엘리트들은 이 의료 기기가 가져오는 보건 상의 혜택을 부각시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어차피 우려를 제기할만한 개인과 단체는 모조리 파악돼있었기 때문에 관리는 수월했다. 온라인 계정만 없애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은 면서에 의존돼있었다. 더 말쑥 부리면 오프라인에서도 손볼 수 있었다. 어차피 몇명이 사라지건 어떻게 되든 언론에 알려지고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없었다. 언론에 대한 지배 역시 오래 전에 완료되었으니까. 불편한 소식을 용감하게

퍼뜨리는 개인이 나타나 언론의 역할을 자처하면 그 개인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개인의 금융 정보도 기기에 집어넣었다. 손목만 갖다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었다. 이렇게 편리하고 투명한 거래는 일찍이 없었다며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 개인의 예금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었기 때문에 잔고가 사라지는 순간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금융 피해의 확산을 줄이니 얼마나 좋냐며 다들 난리였다. 현금을 불법화했다. 체내 기기가 없으면 슈퍼에서 라면도 살 수 없었다. 모든 상거래와 돈흐름이 파악되자 세금 걷는 일이 일사천리였고 암시장이 사라졌다. 세상이 투명해졌다며 다시 언론은 나팔을 불었다.

엘리트들은 용을 써서 바보약을 개발했다. 심성이 유순해지고 지성이 낮아지고 체력이 저하되는 약이었다. 엘리트들은 바보약을 백신에 섞어 사람들에게 투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멍청하고 나른해지자 부정의나 불평등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잃었다. 물론 백신 접종을 싫어하는 거부자들이 있었지만 세력이 되기 전에 소멸시켰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공중 보건의 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사회적 압력에 금방 굴복했다. 피지배자들이 알아서 백신 접종 거부자들을 비판했다. 역시 피지배층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지배 방법이었다. 그래도 백신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조금씩 불편의 강도를 높이면 하나둘 굴복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지배자는 바이러스 개발에 착수했다. 치사율이 너무 높지는 않지만 전염력은 매우 높게 만들었다. 요원의 불길처럼 바이러스가 번졌다. 피지배자들이 먼저 백신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냐며 아우성쳤다. 대강 저급한 기술 섞어 백신을 내놓자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접종했다. 돈을 내면서, 인구 전체에 대한 백신 및 바보약 투입이 완료되었다.

극도의 위생 관념, 미생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위생 산업이 돈을 긁어모았다. 사람들은 중세 기사처럼 무장해서 다녔고 절대 흠을 만지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만지는 현금은 평균 덩어리로 지목됐다. 상점은 현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은 현금이 불법화된 것을 환영했다. 몇장만 겹겹의 방역 유리판에 둘러싸여 박물관에 진열돼있었다.

사람들을 더 무기력하고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음식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독을 넣으면 안 되었다. 살아있지만 늘 병을

달고 있는 정도가 딱 좋았다. 그렇게 하면 의료 제약 산업의 항구적 수입이 보장되었다. 식품을 고도로 가공해서 본연의 미네랄을 결핍시키거나 왜곡시켰다. 백설탕과 소금과 기름을 범벅으로 사용하자 사람들의 혀가 거기 중독되었다. 화학 첨가제가 없으면 맛이 없다고 먹지 않았다. 식품 가공 후 남은 쓰레기들은 다시 가공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덤핑했다. 원시의 초인적 체력을 가졌던 원주민들이 모두 고혈압 고지혈 고비만으로 쓰러졌다.

혹시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전지구의 모든 흙과 물에 독극물을 주입하였다. 흙이 병들고 거기서 자라난 식물도 병들었다. 물이 독이 되자 무수한 생물체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사람은 죽지 않을 정도의 독을 유지시켰다. 병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죽지 않아야 했다. 자폐와 기형이 속출하며 인민의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역시 절대로 죽지 않게 유지하였다.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기 위한 땅과 물은 천연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 자기들은 유기농만 먹고 자기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물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지구 상에 존재하는 깨끗한 수원지를 모두 구입했다. 지구의 모든 물이 오염되자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그 수익이 어마어마했다.

초고도 하이테크 기술 덕에 그 체내 기기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까지 파악하여 송신하였다. 그 덕에 엘리트들은 지구상 모든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였다. 누가 누구와 가족이고, 어떤 유전 질환과 취약성을 갖는지 파악됨은 물론, 어느 곳에 조그만 세포 조각 하나만 남겨도 추적이 가능해졌다. 구시대적 범죄가 싹 사라졌다.

엘리트들은 피지배층을 분류해서 관리하였다. 중간 동조자는 제법 부유하게 살게 해주으로써 불만이 없게 관리했다. 이들은 엘리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스스로 믿고 남들을 설득했다. 이들은 스스로 엘리트라고 믿거나, 누구나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감히!) 얼토당토 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층 소외자들은 기술 진보와 생산량 증대의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다. 엘리트들은 이들이 굶어 죽게 놔두지 않았다. 그건 구식이었다. 이제는

이들에게 오염된 음식을 먹여 배는 부르지만 건강이 망가지도록 했다. 농약 첨가제 방부제 색소 향료 백설탕이 범벅이 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화려한 광고로 세뇌시키면 어리석은 민중은 일부러 그 식품을 찾아서 먹었다. 가난한 주체에 또 돈을 내고 굳이 그 음식들을 찾았다. 비만과 당뇨, 만성병과 성인병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염증과 종양과 치매가 치솟았다. 이들은 돈도 없으면서 막대한 액수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했다. 엘리트들로서는 굶어 죽는 민중의 반란을 피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일거양득의 전략이었다.

반란을 꿈꾸려면 체내 기기를 제거해야 했다. 기기를 가진 이상 위치 정보와 목소리 녹음 송신이 24 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거사를 도모하는 키워드를 발언했다가 탐지되는 순간 적색 명단에 올라가서 눈감작할 사이에 사라졌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의 집회와 결사가 불가능했다. 큰 맘 먹고 체내 기기를 도려낼 경우 기기는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을 즉각 인식하고 그 정보를 발신하게 돼 있었다. 그 경우 바로 수배에 들어갔다. 기기를 파괴해도 중앙에서 즉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해당 개인을 색출했다.

그렇게 민중은 자유와 야성을 거세당하고 순종만을 미덕시하며 살게 되었다. 이제 지배 행위는 슈퍼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되었다. 엘리트는 지배의 영속을 위해 애쓸 것도 없이 슈컴이 모두 알아서 해주었다. 디지털-바이오-나노-인포 테크는 모두 통합되어 지배층을 위해 복무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인민 해방을 외치던 광야의 목소리도, 불평등의 구조를 폭로하던 야성적 지식인도, 과감한 변화를 기획하던 패기의 정치인도 모두 사라졌다. 배부르고 나태하고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지배층과 병들고 어리석고 유순한 피지배층만 남아있었다.

엘리트들은 지배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작업하고 있었다. 육체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완성하고 비로소 마음에 대한 완전한 장악에 도전하였다. 인류 역사상 피지배 계급의 생각을 지배한 이는 없었다. 이른바 독심(讀心) 기술이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탐지하여 해독해서 기록하는 프로젝트였다. 말이나 글로 표현되기도 전, 생각의 단계에서 이미 내용 파악이 되었다. 생각이라는 현상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이 수십년간 연구했다. 이 성과를 토대로 드디어 독심이 가능해졌다. 이제 반란의 생각만 해도 탐지할 수 있었다.

반란에 대한 꿈만 꾸어도, 말 그대로 잠자다가 꿈만 꾸어도 개인은 요주의 명단에 올랐다.

이 기술은 실로 양자심리학까지 동원한 최고도의 걸작이었다. 비로소 엘리트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축배를 들어야겠다며 오랜만에 엘리트들의 대결집인 비다부(肥多富)를 열었다.

하지만 비다부 당일 나타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세상에 인간으로서 부자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였던 것이다. 지배를 영속시키도록 프로그램된 슈킴은 부익부 빈익빈을 계속 가속화했고, 그 결과 지구의 부를 독점할 부자의 수가 1인 이하로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배를 탐닉할 인간도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은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 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부는 슈킴이 만들어낸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의 지배 구조 내에 또한 자연인은 하나도 없었다. 회사의 경영도 모두 컴퓨터가 맡은지 오래였다.

결국 인류는 기계의 노예가 되어 반란의 꿈도 꾸지 못한채 살고 있었다. 불만의 생각만 일으켜도 슈킴이 탐지하여 단계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반항하는 개인은 온라인 상의 정체성을 소멸시켰다.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온갖 거래 차용 신용 신청 접수 등이 봉쇄되었다. 디지털 등록부 상에서 개인이 삭제되는 순간 사회적 사망이 선고되는 셈이었다. 계정의 소멸은 개인의 소멸이었다.

이와 같은 무등록자를 야인이라 불렀다. 야인은 체내 기기를 도려내고는 야생에 들어가서 살았다.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땅은 기존 인류가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인들은 툰드라 타이가 사하라 아마존 시베리아 등에 들어가서 생존했다. 처음에는 점점이 흩어져 살던 개인은 차츰 모여서 부락을 형성했다.

이들은 디지털을 경멸했고 원시적 기술을 사용했다. 작물과 가축을 기르고 사냥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다. 어릴 때부터 무술과 체력 단련, 무기 다루기를 배웠다. 불평등과 부정의에 혹독하게 당했던 야인들은 정치적 철학적으로 철저히 각성되어 있으면서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친자연의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했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 역사 철학

문학이 꽃피었다.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탐색이 지속되면서 인격 도야, 심성 성찰, 명상과 수행이 일상이 되었다.

사회 시스템에 얽히지 않고 자립하여 살아남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했다. 야인들은 개인이 자립하고 가정이 자립하고 마을이 자립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시했다. 홀로 설 수 있으면 외부의 파도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회 시스템이나 정부나 기업 서비스에 대한 의존은 곧 노예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성향은 모두 경험의 산물이었다.

비다부 결집에 자연인 인간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비보가 야인들에게 전해졌다. 그 동안 세상사와 담을 쌓고 지내던 이들이 다수였지만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야인들은 인류 해방이라는 깃발을 들고 문명 사회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총을 들고 싸워야 할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배자는 비인간이었고, 진정한 적은 피지배자들 뺏속 깊이 뿌리박힌 노예 근성이었다.

四分說

행복하게 살면서 불행한 자
불행하게 살면서 불행한 자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한 자
불행하게 살면서 행복한 자

삶에 의미가 있는데 허무한 자
삶에 의미가 없어서 허무한 자
삶에 의미가 있어서 자유로운 자
삶에 의미가 없어서 자유로운 자

부유한데 남을 돕지 않는 자
가난해서 남을 돕지 않는 자
부유해서 남을 돕는 자
가난한데 남을 돕는 자

편안한 환경에 사는데 구속된 자
장애가 많은 환경에 살아서 구속된 자
편안한 환경에 살아서 자유로운 자
장애가 많은 환경에 살지만 자유로운 자

가진 것이 많은데 자신감이 없는 자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자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감이 있는 자
가진 것이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자

사랑을 받는데 미움을 돌려주는 자
미움을 받아서 미움을 돌려주는 자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돌려주는 자
미움을 받는데 사랑을 돌려주는 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원수를 원수로 갚는 자
은혜를 은혜로 갚는 자
원수를 은혜로 갚는 자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무너지는 자
고통스러운 삶을 겪고 무너지는 자
평안한 삶을 살고 강해지는 자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는데 강해지는 자

부드러운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위축된 자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라서 위축된 자
부드러운 아버지 밑에 자라서 당당한 자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당당한 자

따뜻한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삭막한 자
차가운 어머니 밑에 자라서 삭막한 자
따뜻한 어머니 밑에 자라서 온화한 자
차가운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온화한 자

약자를 돕지 않으면서 경멸하는 자
약자를 돕지만 경멸하는 자
약자를 돕지 않지만 섬기는 자
약자를 도우면서 섬기는 자

평생 성공했는데 비관적인 자
평생 실패했기 때문에 비관적인 자
평생 성공했기 때문에 낙관적인 자
평생 실패했는데 낙관적인 자

자기 꿈을 쫓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 성공했으나 불행한 자
자기 꿈을 쫓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 실패해서 불행한 자
자기 꿈을 쫓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 성공해서 행복한 자
자기 꿈을 쫓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 실패했으나 행복한 자

올바름을 아는 것은 지혜
올바름을 행하는 것은 용기
올바름을 드높이는 것은 덕

知正曰智

行正曰勇

揚正曰德

비매품/무료



9 791196 811129

ISBN 979-11-968111-2-9 (PDF)